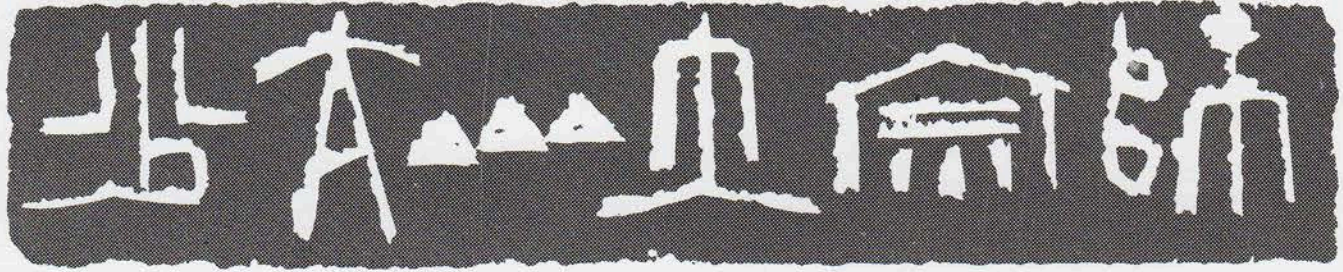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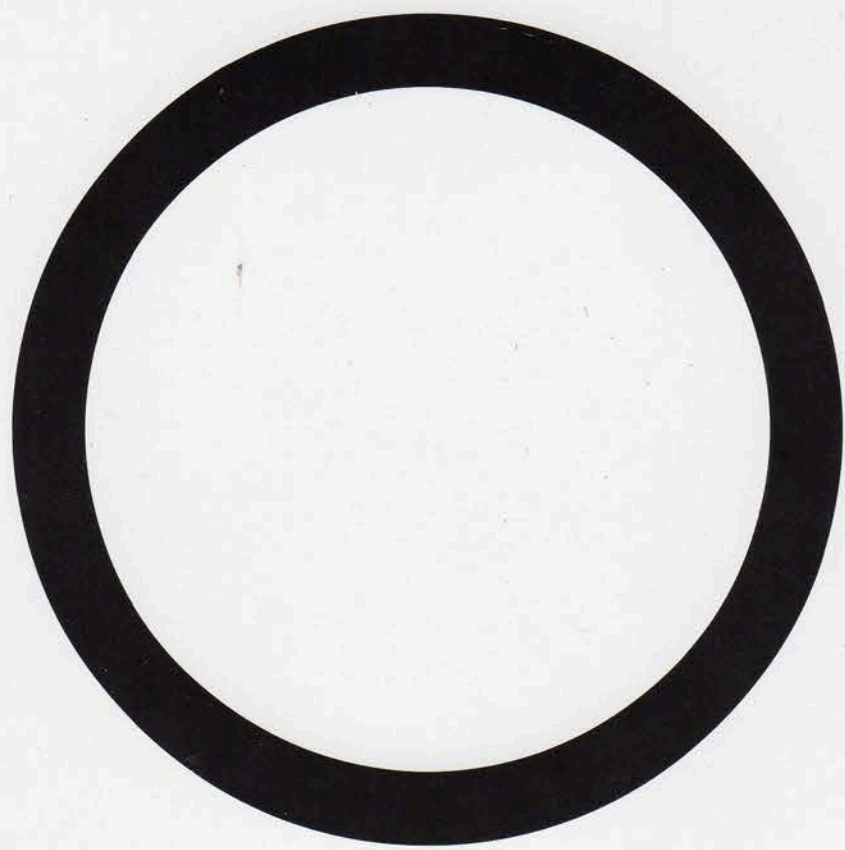


소태산대종사탄생100주년 기념사진첩



### **법신불 일원상**

진리의 상징이며 원불교의 최고 종지(宗旨),  
신앙의 대상이며 수행의 표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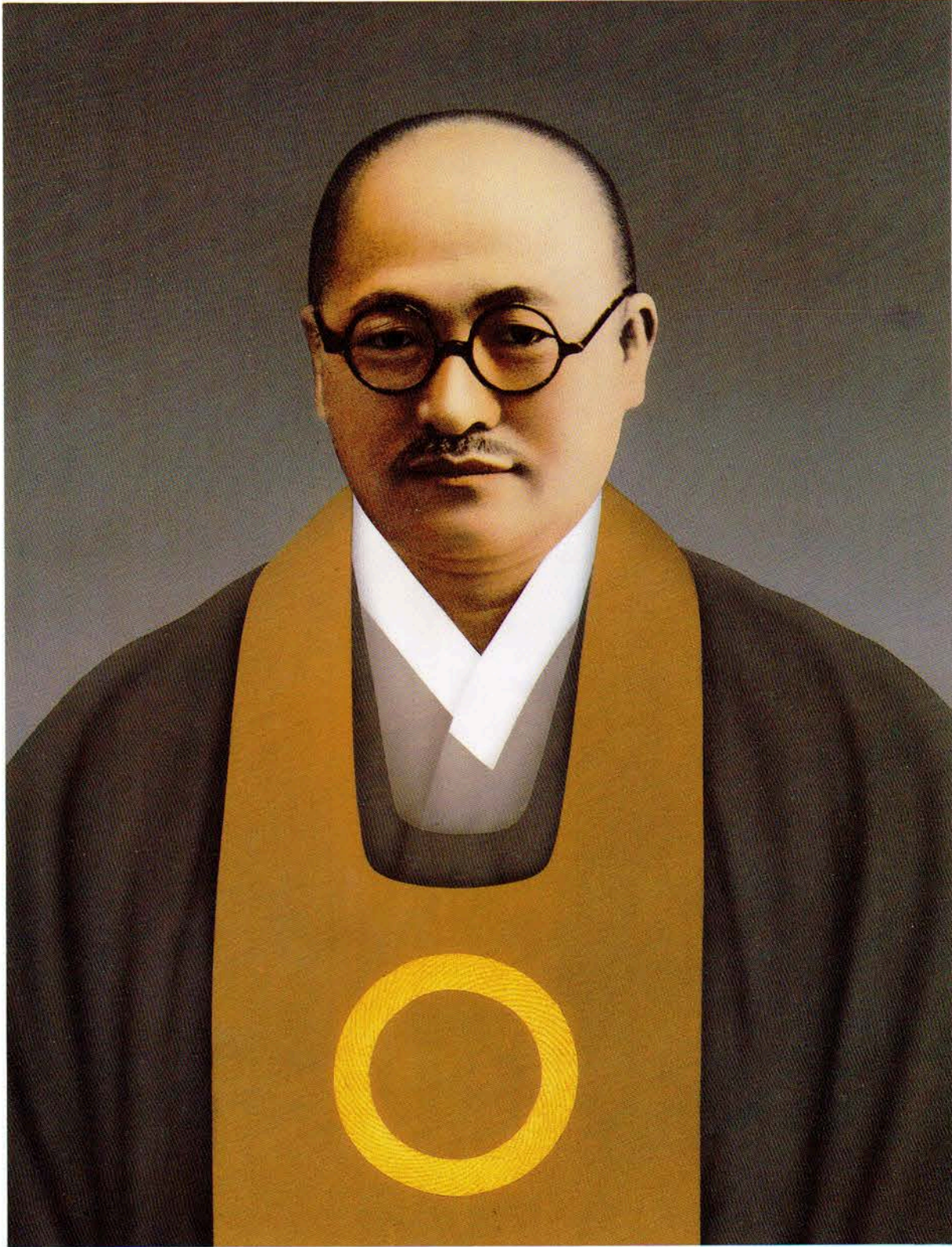


# 大宗師 眞影

#### 소태산대종사

1891년 5월 5일 전남 영광에서 탄생하시어 어려서부터 자연현상과 인생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시고 20여년간의 구도고행 끝에 1916년 4월 28일 스스로 대각을 이루시었다. 대각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외치시며 제자들과 저축조합을 설립하시고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며 인류구제를 위한 기도로 진리의 인증을 받아 새회상을 창립하셨다. 일제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새로운 문명세계 건설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시고 교화·교육·자선사업울 진흥시키며 중생교화에 헌신하시다가 “有는 無로 無는 有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有와 無가 俱空이나 俱空역시 具足이라”는 계승을 설하시고 원기 28년(1943) 6월 1일 열반하시었다. 성은 박씨이며 이름은 重彬, 호는 少太山으로 大宗師는 존칭이다.

\* 이 「사진첩」은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을 맞아 그 위대하신 사상과 생애를 삼가우러려 받들고 그 자취를 우리들 가슴깊이 되새기기 위하여 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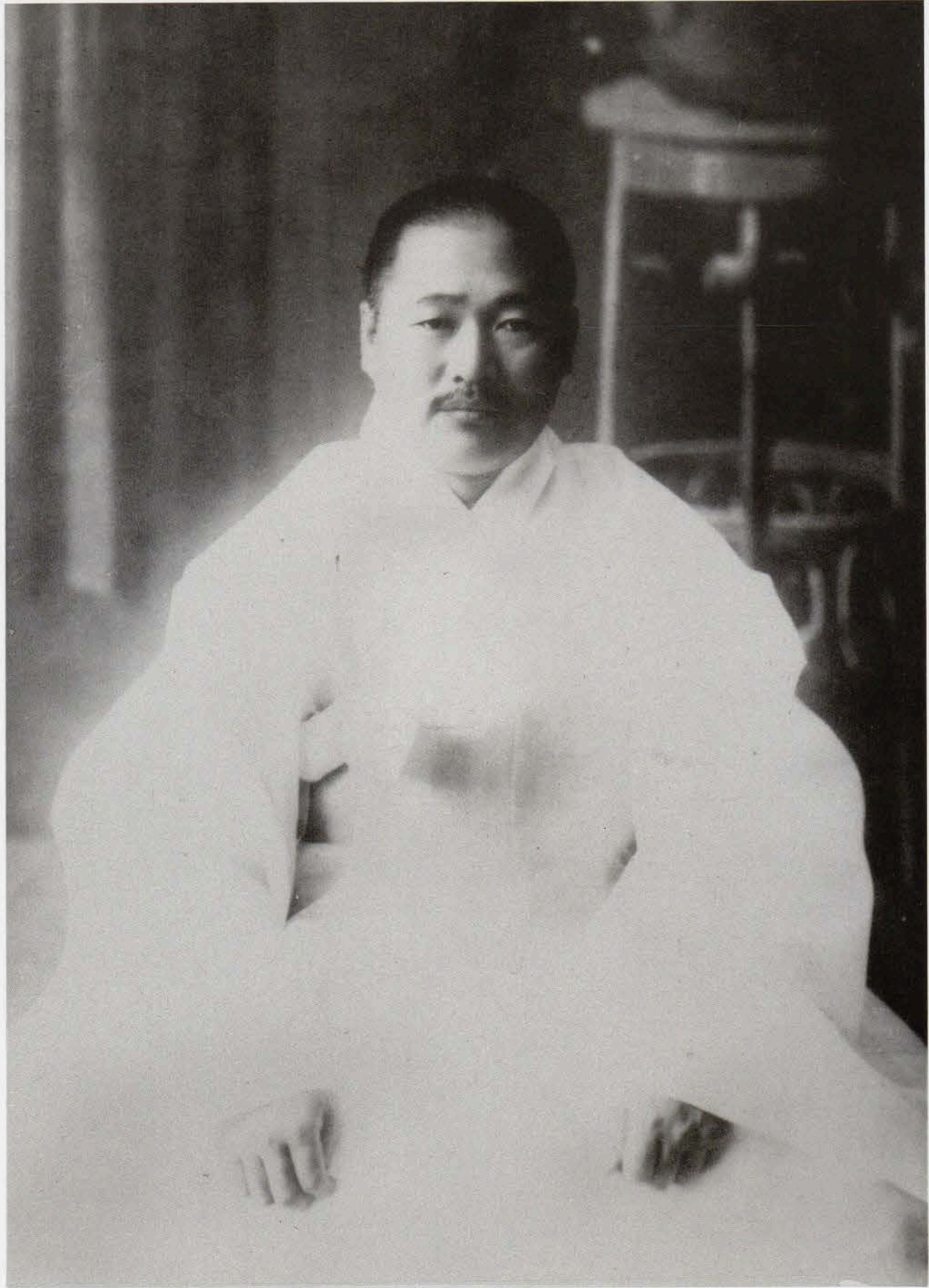
소태산대종사 성탑





새회상 창립을 기하여 대중사 삭발  
만덕산 초선지에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하산에 앞서 삭발 하셨으며 다음 해 갑자년에 익산땅에 새 회상을 열으셨다.  
사진은 원기 8~9년경 겨울, 30대 중반의 대중사.





원기10년 여름, 서울 제자 민자연화가 옷감을 마련하고 그녀의 큰딸 이성각이 지어 올린 도복을 입으시고 영광에서 촬영.





원기12년 3월 서울 제자 이공주가 올린 외투를 입으시고





좌정하신 대종사님. 원기12년경





원기13년 2월





원기13년 2월





원기14년경 서울에서





〈육대요령(원기17년 4월1일 발간)〉에 실린 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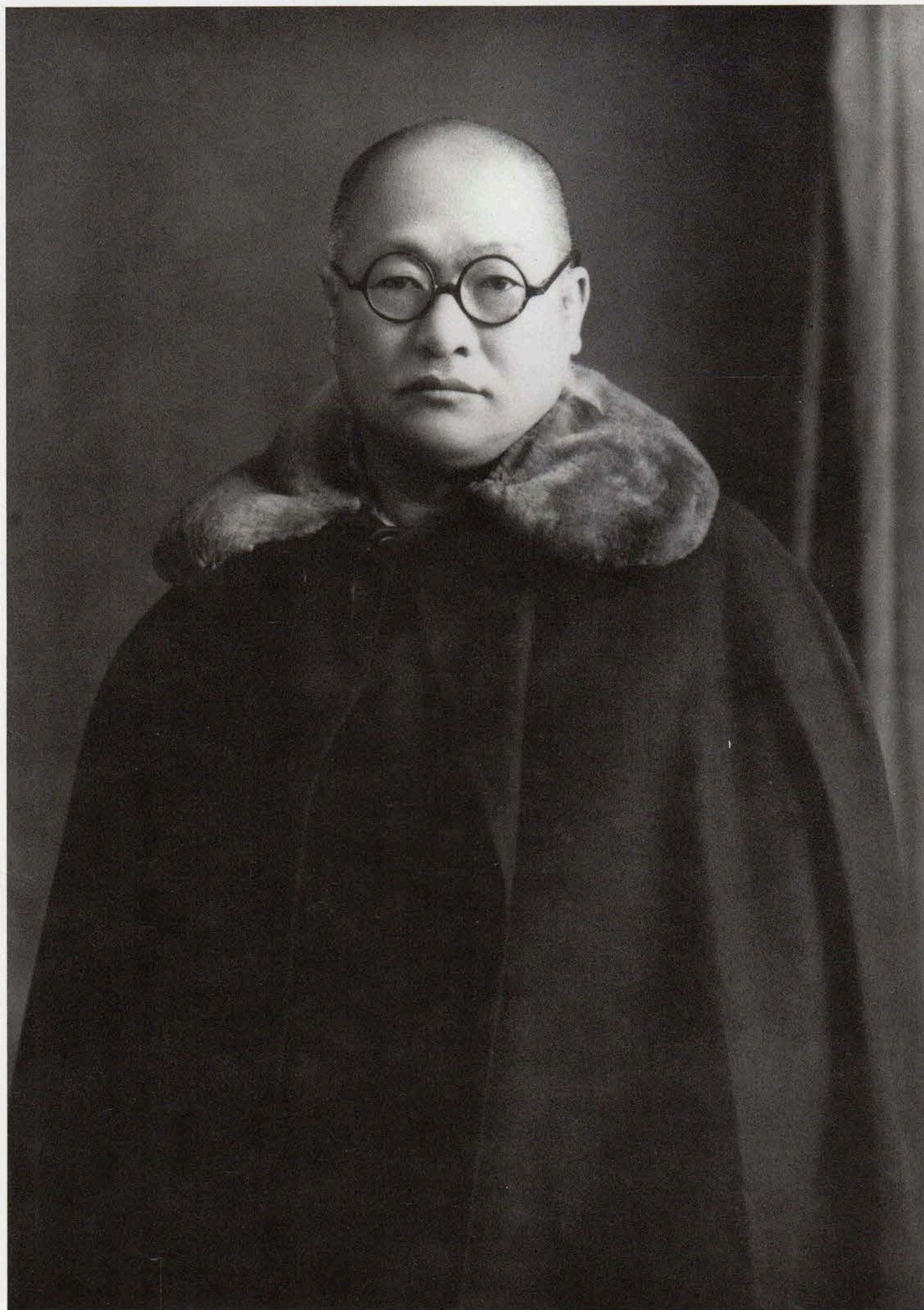
원기16년 서울에서 촬영.



『삼대요령』에 실린 대종사님 진영



원기22년



서울 제자 황정신행이 올린 털외투를 입으시고 전음광이 이리에서 촬영. (원기22년경)



원기25년 서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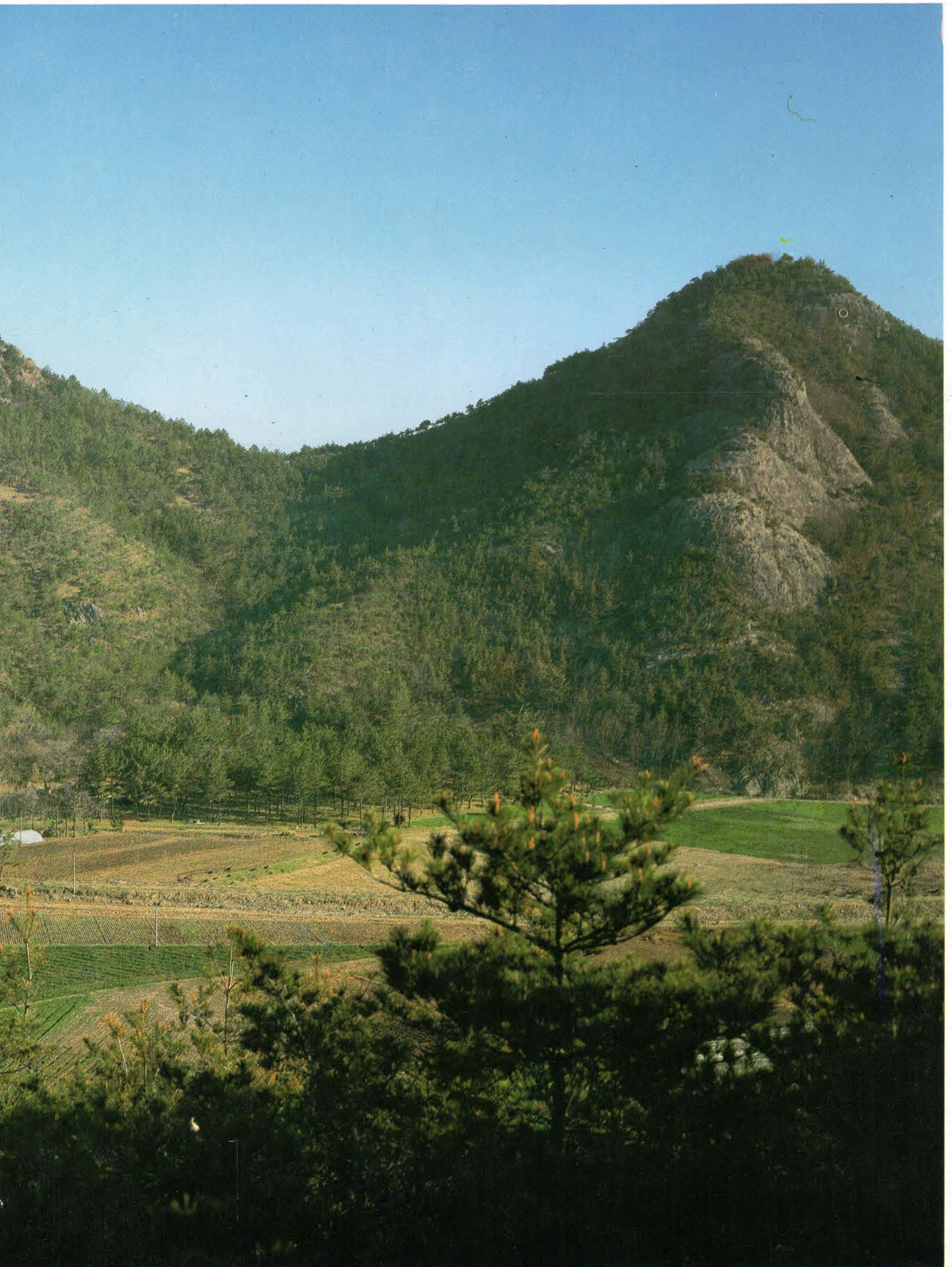


일제의 강권에 의해 일본 방문을 준비하실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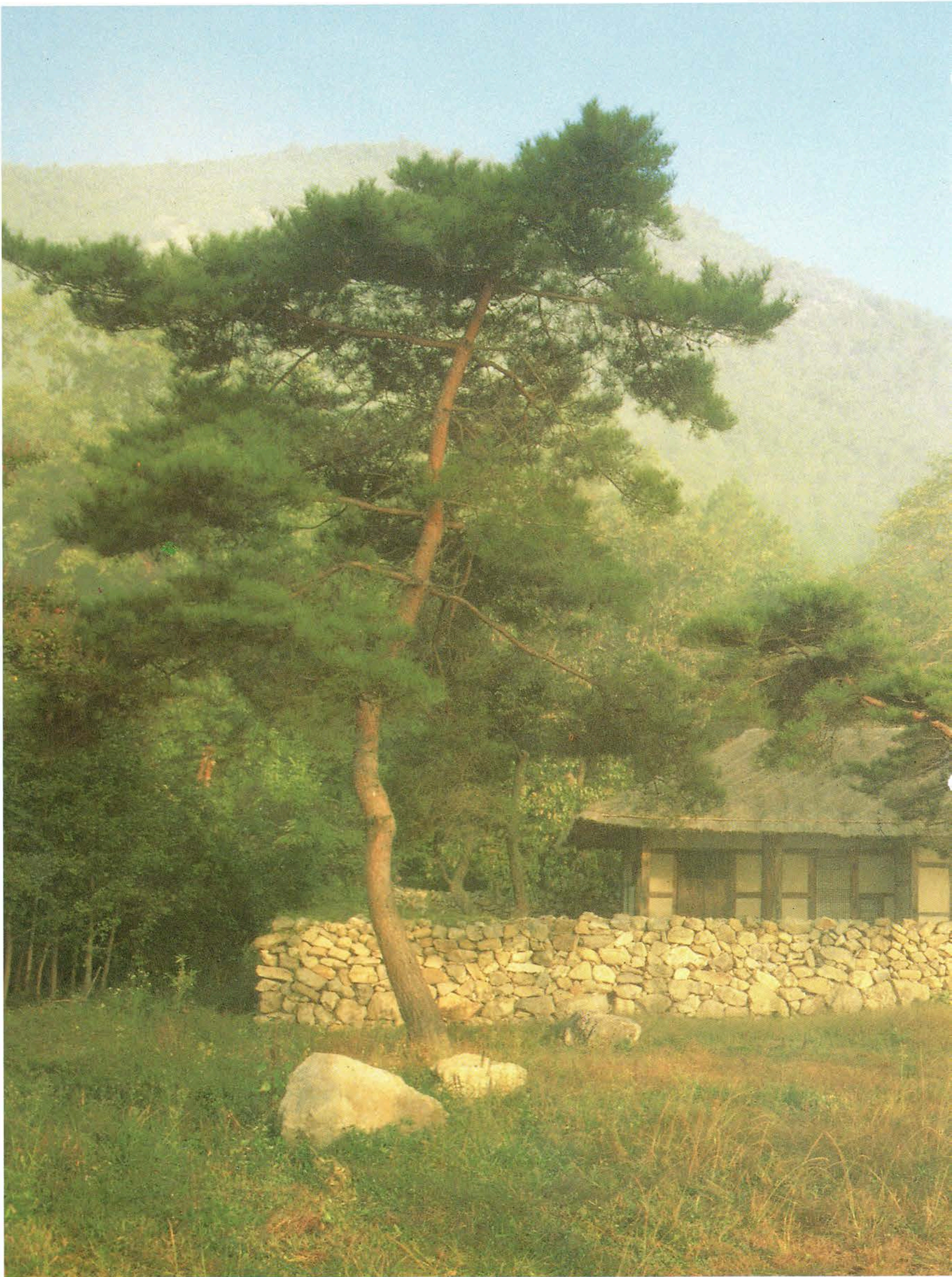


# 大宗師生涯와 教化活動





대종사님 탄생하신 영촌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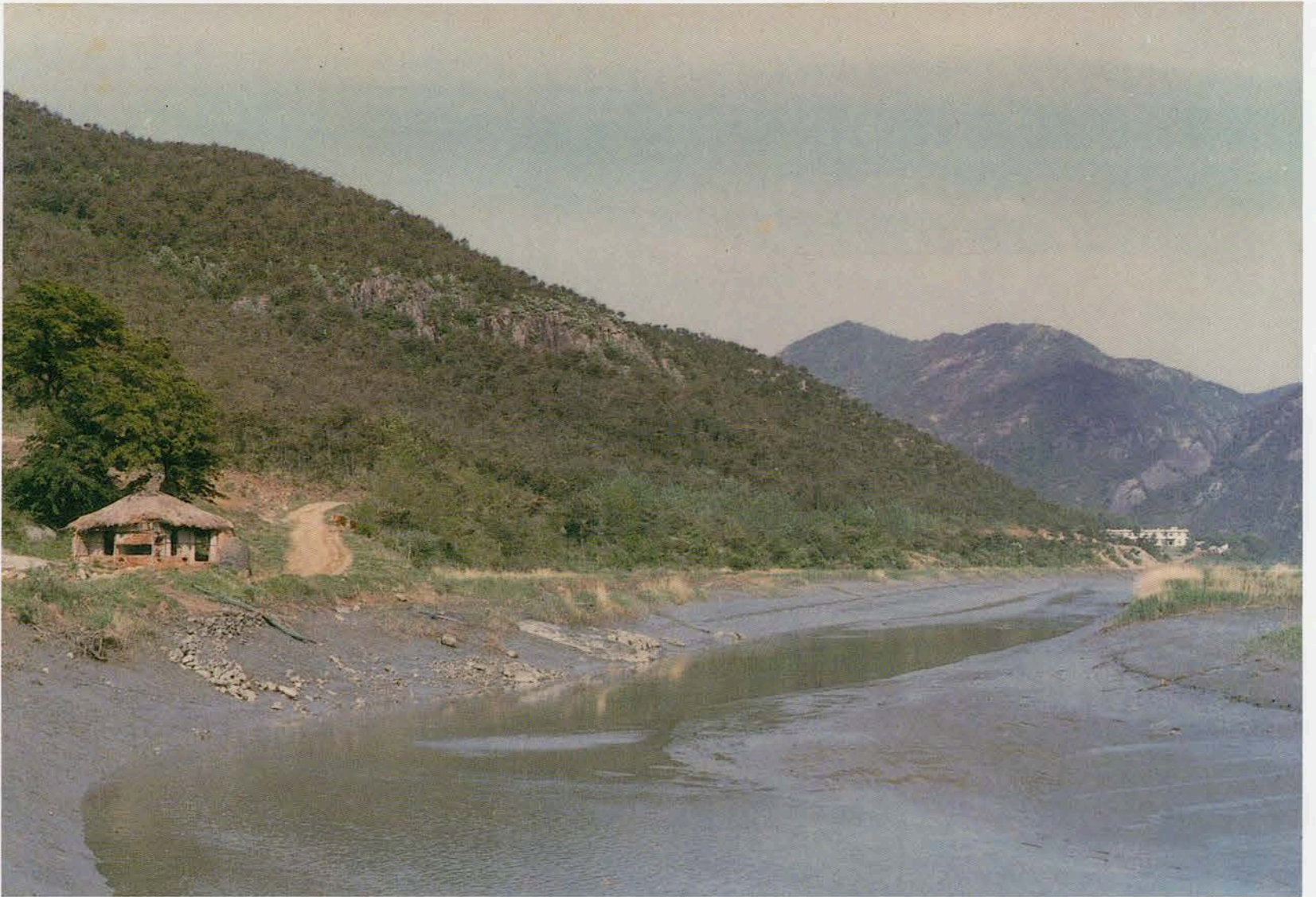


원기66년(1981)에 복원된 생가





대종사님 대각을 기리어 개교반백년을 기념하여 세운 「만고일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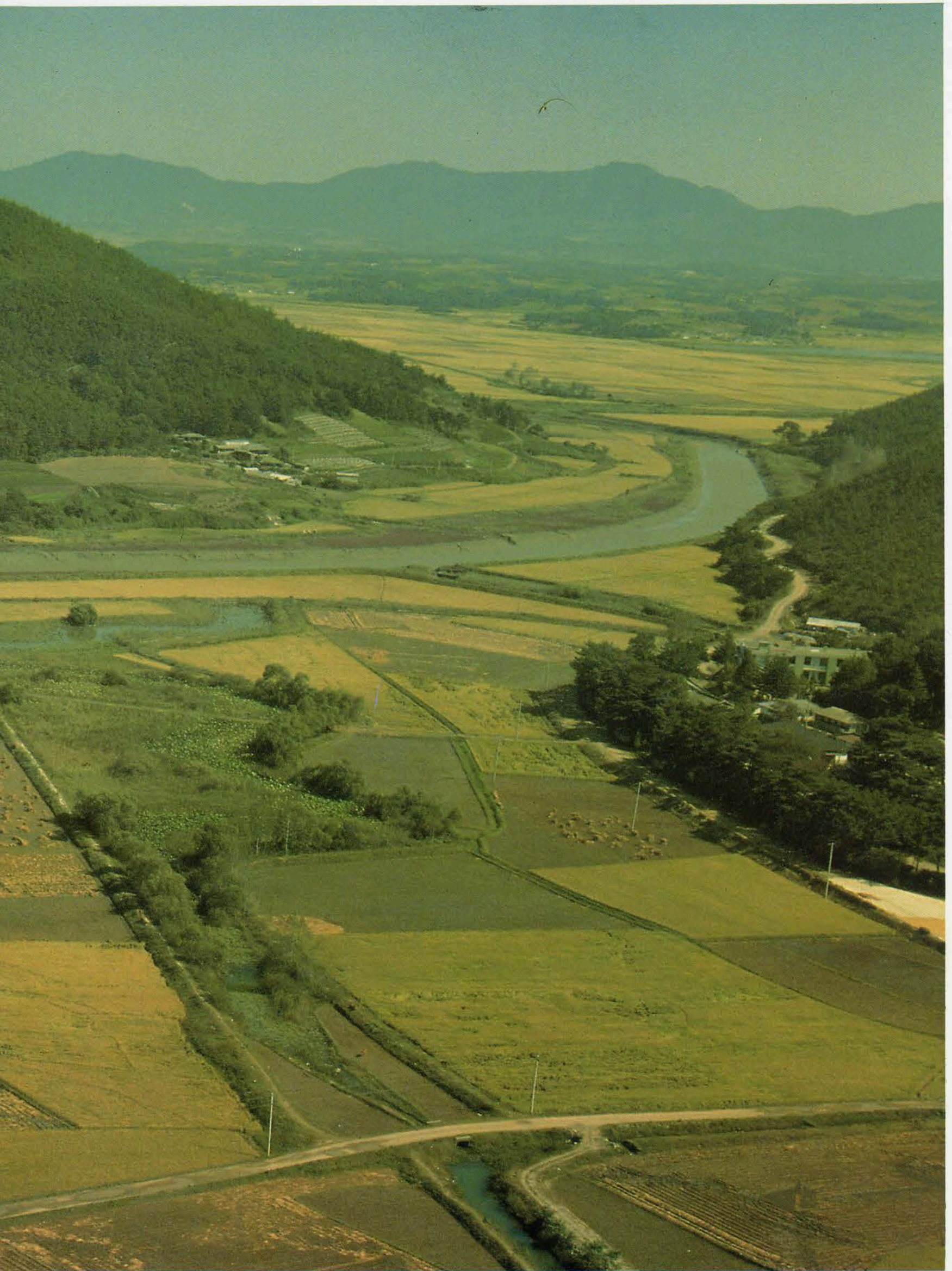


현재의 선진포



노루목





현재 정관평 방언담. 1차 방언공사 후 2차, 3차로 확장공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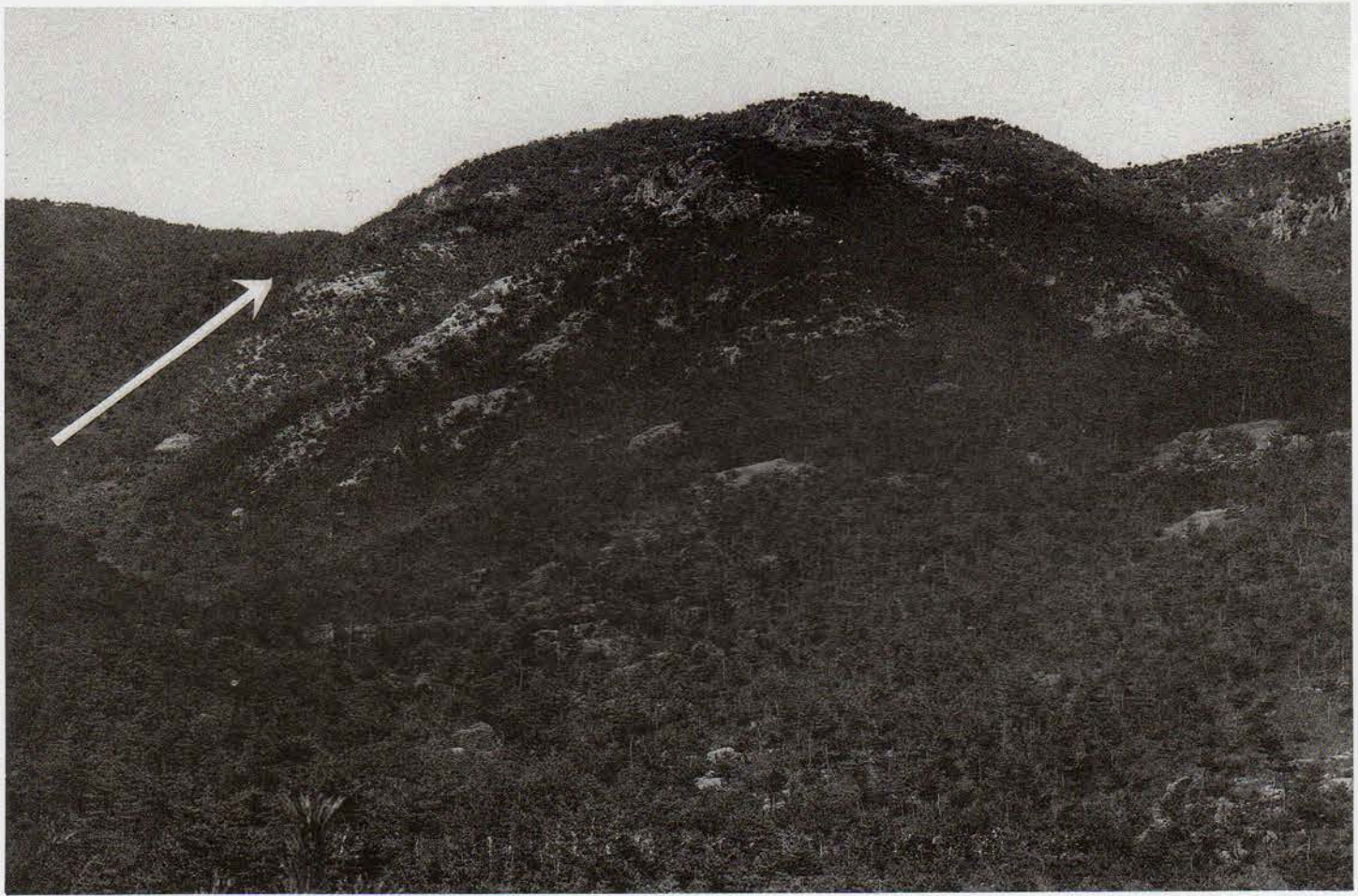


大宗師誕生址(永村)

**영촌마을 탄생가**

옥녀봉 위의 태양이 빛나던 날 1891년 5월5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마을에서 소태산대종사님 탄생하셨다.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시던 해 봄. 3년동안 가물었던 산야에 단비가 흠뻑 내려 생기를 찾았다 한다.

영촌마을 대종사님 생가. 대종사님 이곳에서 14세까지 살으셨다.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삼밭재에서 기도드리시다  
 대종사님 10세때 문중 시향제에 따라가셨다가 집안 어른들로부터  
 산신령을 만나면 모든 의문을 풀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로부터 4년간 산신령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다.

(위) 삼밭재 기도터로 오르는 산길 (아래) 삼밭재 마당바위



**이 일을 어찌 할꼬**

산신과 도사를 만나 뜻을 이루려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대중사님께서는 21세부터  
「내 이 일을 어찌할꼬」 앓으나 서나  
우두커니 명상에 잠기셨다.

선진포 입정터.  
대중사님께서 노루목에 사실때 범성포  
장에 가시기 위해 선진포로 나룻배를 타러  
가셨다가 서신채로 한나절을 입정에  
들으셨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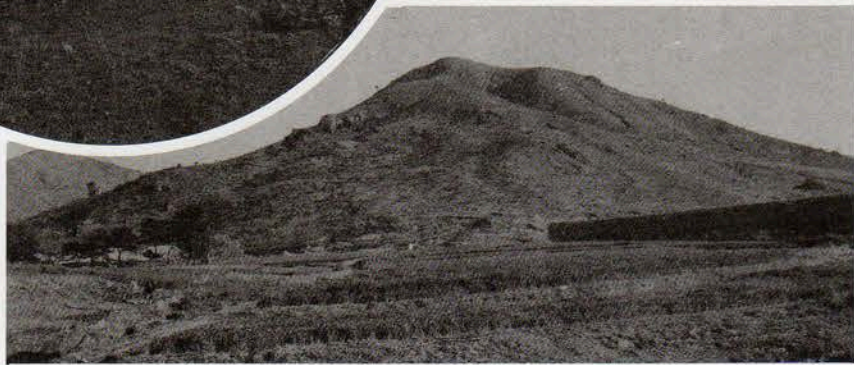




大宗師入定時第一回禪家 耳岩(귀영바위)窟址



(위) 대종사님 초기 입정시, 귀영바위 앞 오두막 집터  
 (아래) 귀영바위 흠구덩이 오두막에서 수양하실 당시 끈질 입정에 드시곤 하셨던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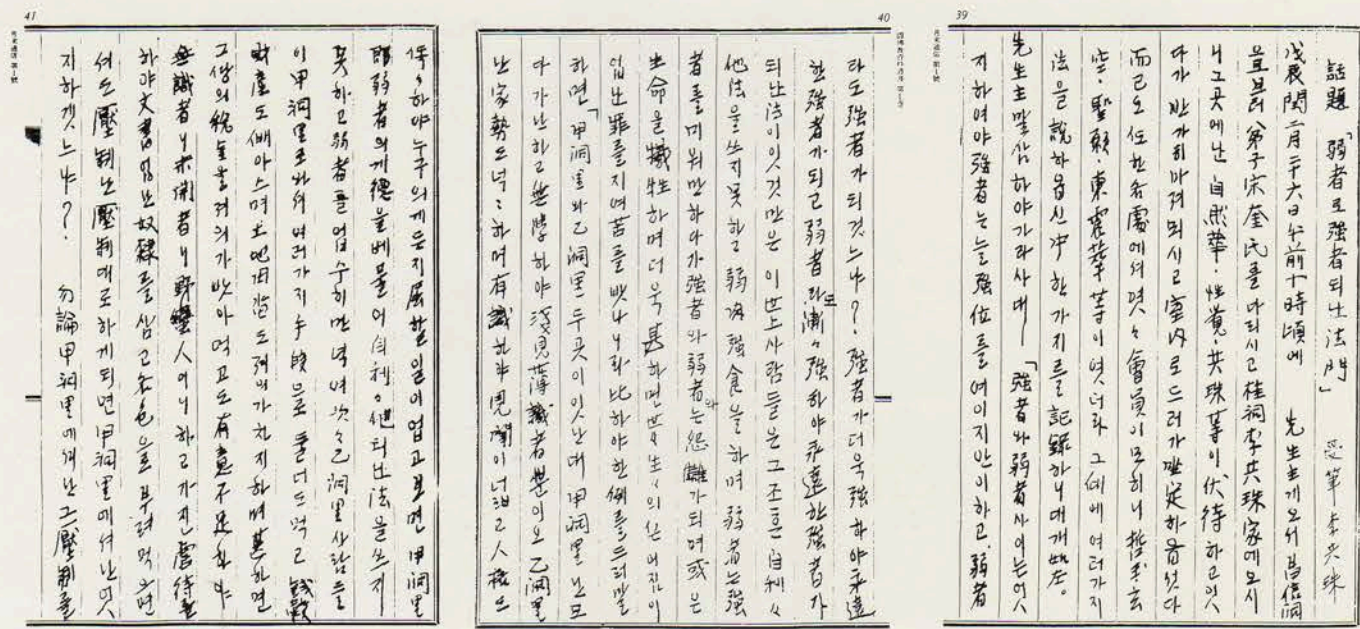


(위) 노루목 옛집터 (아래) 대각 하시기전 정진하셨던 고창군 심원면의 연화봉과 초당터



**최초법어**

대중사님 대각 후 동네 사람들에게 세상을 본 첫 감상을 이야기하셨다. 이 최초법어에는 대중사님 생애에 일관되는 중심사상이 나타나 있으니 수신·제가·치국·평천하법(약자가 강자되는 법)이다. 특히 약자가 강자되는 법문에는 약소민족이 역경을 딛고 일어 설수 있는 가르침이 잘 나타나 있다.



(위) 뭇드래미(帆懸洞) 전주이씨 제각. 대중사님 대각 후 최초의 집회 장소, 최초법어를 설하셨던 곳.  
 (아래)《월말통신 1호》에 게재된 최초법어(약자가 강자되는 법문). 원기 13년 2월(음) 서울 계동 이공주의 집에서 이 법문을 설하셨다.

最 初 法 語

●修身의要法

- 一 時代를따라 學業에從事하여 모든學文을準備할것ियो
- 二 精神에修養力이能하여야分數지히는대 安定을얻을것이며 喜怒哀樂의境遇를當하여도 正義를잃지아니할것ियो
- 三 일과이치에 研究力이能하여야 虛僞와事實을分析하며 是非와利害에判斷함이빨을것ियो
- 四 應用할때 取捨하난注意心을놓지아니하고 知行을같이하여야할것이니라

( 71 )

●齊家의要法

- 一 實業과衣食住를 完全히하고 每日收入支出을對照하여 勤儉貯蓄하기를主張할것ियो
- 二 戶主된者가 見聞과學業을 이저바리지아니하며 子女의教育方策을이저바리지아니하며 모든일에責任을 이저바리지아니할것ियो
- 三 家眷이서로和睦하며 意見交換하기를主張할것ियो
- 四 內面으로 心理밝혀주난道德의師友가있으며 外面으로規則 밝혀주난政治에服從이있어야할것ियो
- 五 過去와現在의 모든家庭이 어떠한希望과 어떠한機關으로 安樂한家庭이되었으며 失敗한家庭이되었는가 參照하기를注意할것이니라

( 72 )

●强者弱者의進化上要法

一 强弱의大旨를들어말하면 某事를勿論하고이기간것은 强이

요 지난것은弱이라 强者는弱者로써强의目的을達하고 弱者는强者로써 强을얻난故로 서로依支하고 서로보탕하여 親不親이있나니라

二 强者는弱者에게 對하여强을배풀때에 自利他에근치며 弱者를强者로進化시키난대에근치난것이 永遠한强者가 될것ियो 弱者는强者로써先導者를삼시고 어떠한千辛萬苦가 있다하여도 弱者의자리에서 强者의자리가드락까지 進步하야가난것이 닳이없난强者가될것이다 强者가强者노릇을할때에 어찌하면이强이永遠한强이되고 어찌하면强이變하야 弱이되난것인지 생각없이다못自利他害에만근치고보면 强者로써弱者가될것ियो

( 73 )

弱者는 强者되기前에 어찌하면 弱者가變하야强者되고 어찌하면强者가變하야弱者되난것인지 생각없이다못 强者를 對抗하기로만하고 弱者가强者되난 理致를찾지못하난것이 永遠한弱者가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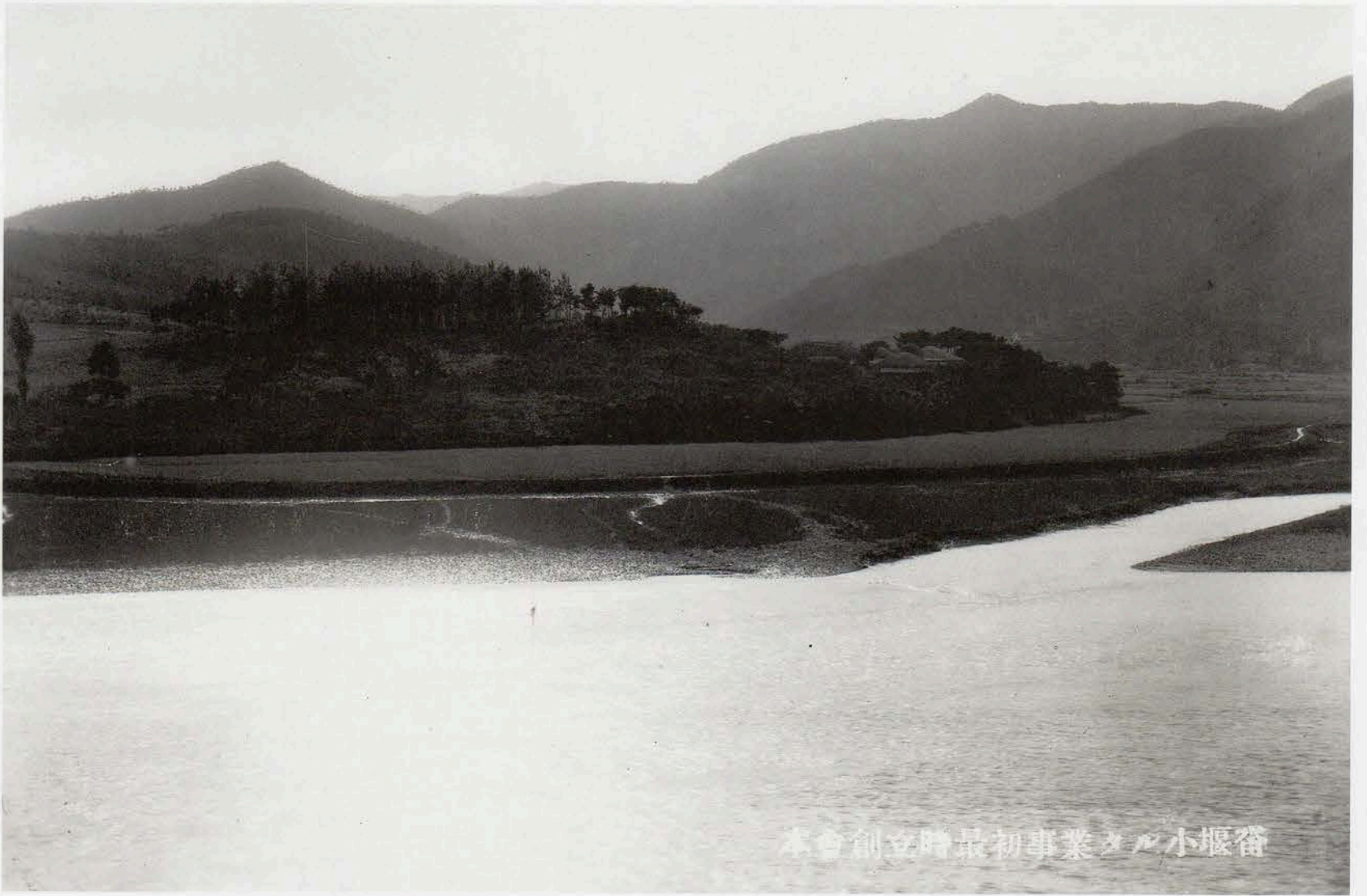
三 强으로써 永遠한强을얻은사람은 過去에堯와舜과釋迦牟尼佛이요 强으로써弱을얻은사람은 過去에秦始皇과項羽와近世獨逸의일헤름第二世카이젤이니라

( 74 )

指導人으로서準備할要法

- 一 指導를받는者의以上知識을가질일
- 二 指導를받는者에게信用을잃지말을일
- 三 指導를받는者에게私利를取하지말을일
- 四 일을當할때마다 知行을對照할일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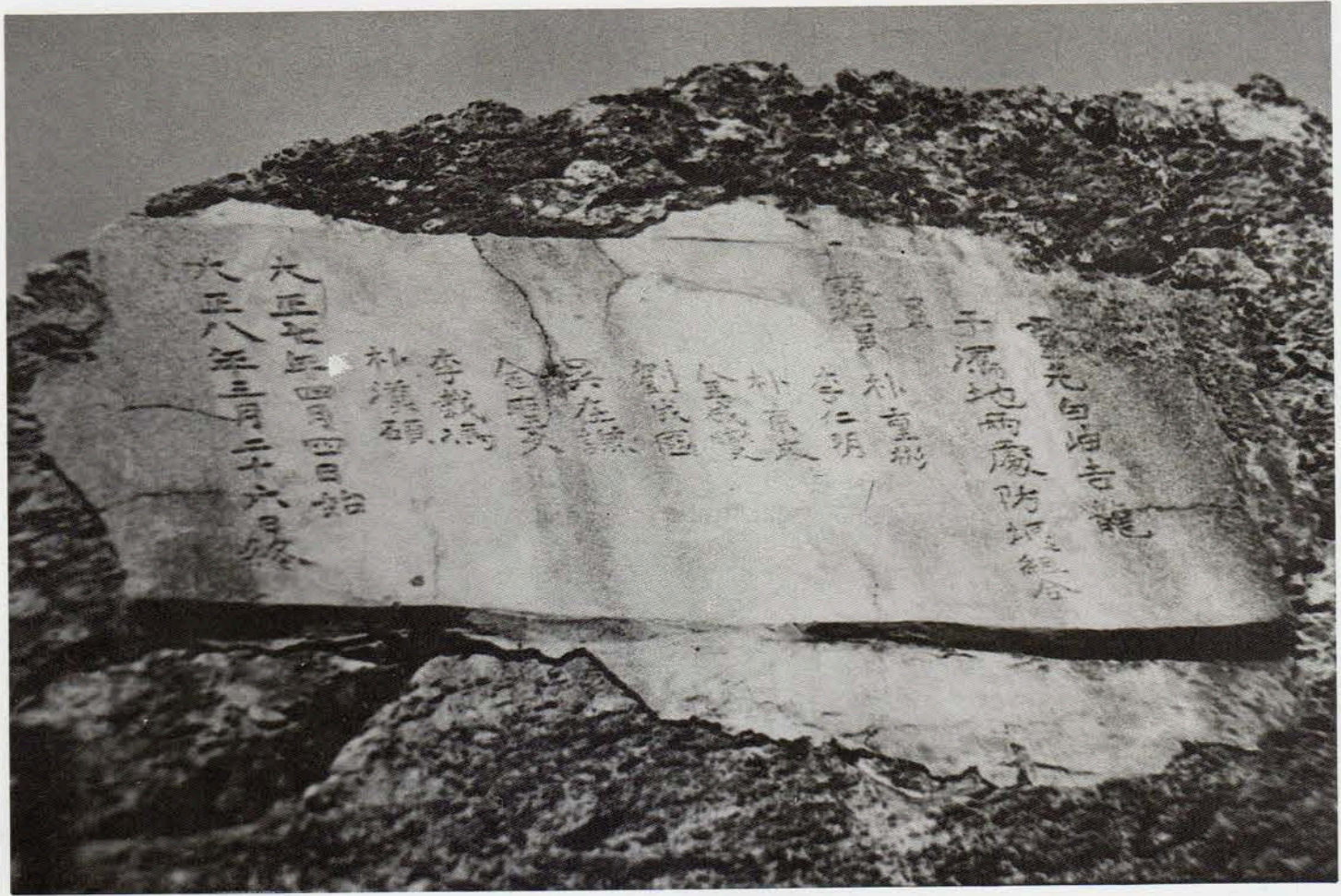
本會創立時最初事業タル小堰笹



#### 교단창립의 경제적 기초가 된 방언공사

서해안 일대 간석지에 일인들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조선인들이 수수 방관하고 있을 무렵, 대중사님은 순수 민간인 중심으로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의 단결력과 저축금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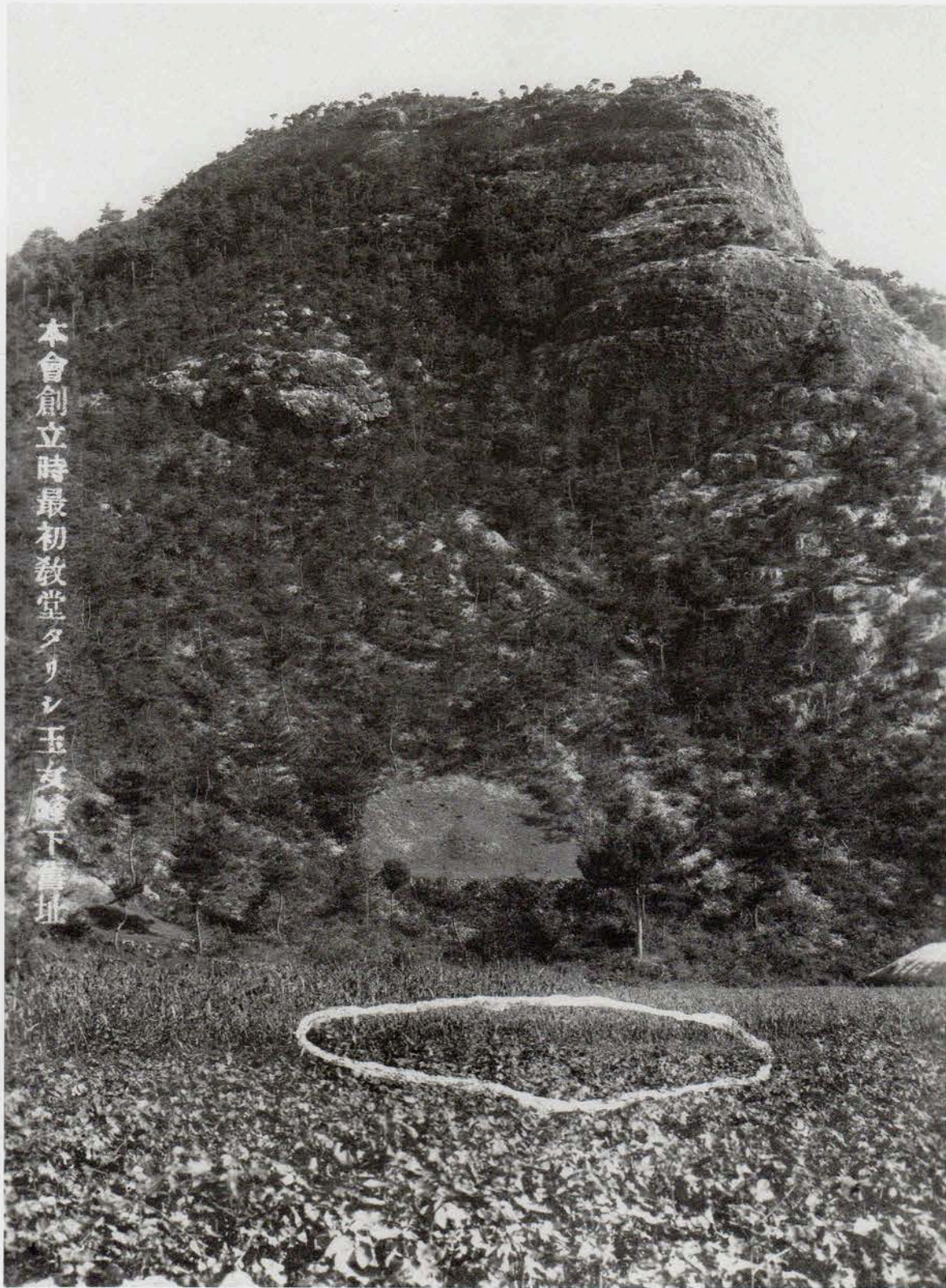
저축조합장(대중사)의 지도와 8인 조합원들의 단합정신으로 1년만에 3만평의 간척담을 완공하여 논 한평없는 주민들에게 생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셨다.



(위) 방언공사를 준공하고 언답을 굽어보는 옥녀봉 기슭 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지축조합장 대종사님을 비롯 8인 조합원들의 이름을 새긴 제명바위.  
(아래) 방언공사 당시 방언관리소였던 강변 주막터.



(위)길룡리 앞 개펄의 방언공사 광경. 앞의 산은 와단천 건너 촛대봉(제2차 방언공사시 촬영)  
 (아래)옥녀봉 앞 간척담 정관평에서 수확을 앞두고 기념촬영한 영광(길룡)지부 작농부 일동



구간도실(九間道室)터

옥녀봉 아래 방언조합실 터. 9인 선진들이 대중사님을 모시고 낮에는 방언공사하고 밤에는 공부하던 회실(會室)이 있던 곳. 아홉제자들이 각기 한칸씩 잡아 공부할 수 있도록 가로 3칸 세로 3칸의 초가가 지어졌다 하여 통칭 「구간도실」이라 하였다. 원기4년(1919) 이곳에서 백지혈인(白指血印)의 이적을 나타는 법인성사(法認聖事)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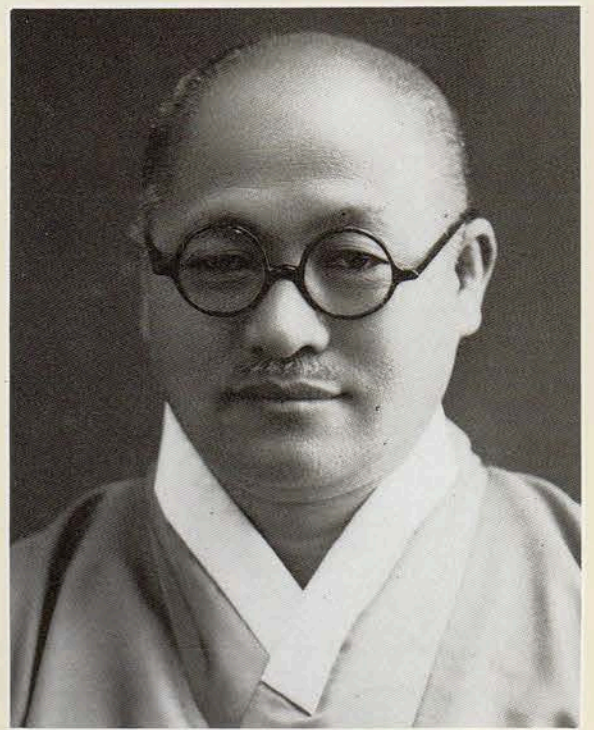


#### 법인 산상기도

교단 창립의 경제적 기초로 방안공사를 마치고 대종사님은 9인 제자들에게 인류구원의 공도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원기4년 4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산상기도를 하도록 명하였다. 노루목 뒷산을 중심(중앙봉)으로 8방의 산봉우리에 올라가 9인제자들은 인류구원과 창생제도를 위한 사심없는 기도정신으로 사무여한의 결의를 하여 마침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법계인증을 얻게 되었다.

#### 영산원 (靈山院)

원기8년(1923) 대종사님 모친상을 당하시자 각지 회원들이 모여들어 옥녀봉 회실이 너무 협소함을 느껴 현 기지인 돛드레미 산기슭에 터를 닦아 구간도실을 옮겼다. 원기8년 가을에 완공하여 「영산원」이라 이름하였다.



단장 / 대 중 사



一山 / 李載喆



二山 / 李旬旬



중앙 / 鼎山 宋 奎



三山 / 金幾千



四山 / 吳昌建



五山 / 朴世喆



八山 / 金光旋



七山 / 劉市



六山 / 朴東局

### 10인 1단 단조직

대중사님 대각하신 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중사님은 그들 중에서 모범이 될만한 믿음 있고 진실한 아홉명을 고르셨다.

대중사님은 10인 1단을 조직하시고 친히 단장이 되신 후 중앙자리는 비워놓으셨다가 후일 경상도 성주로부터 온 송규(鼎山)를 맞아들였다.

대중사님께서서는 아홉제자들에게 각각 방위(方位)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바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이 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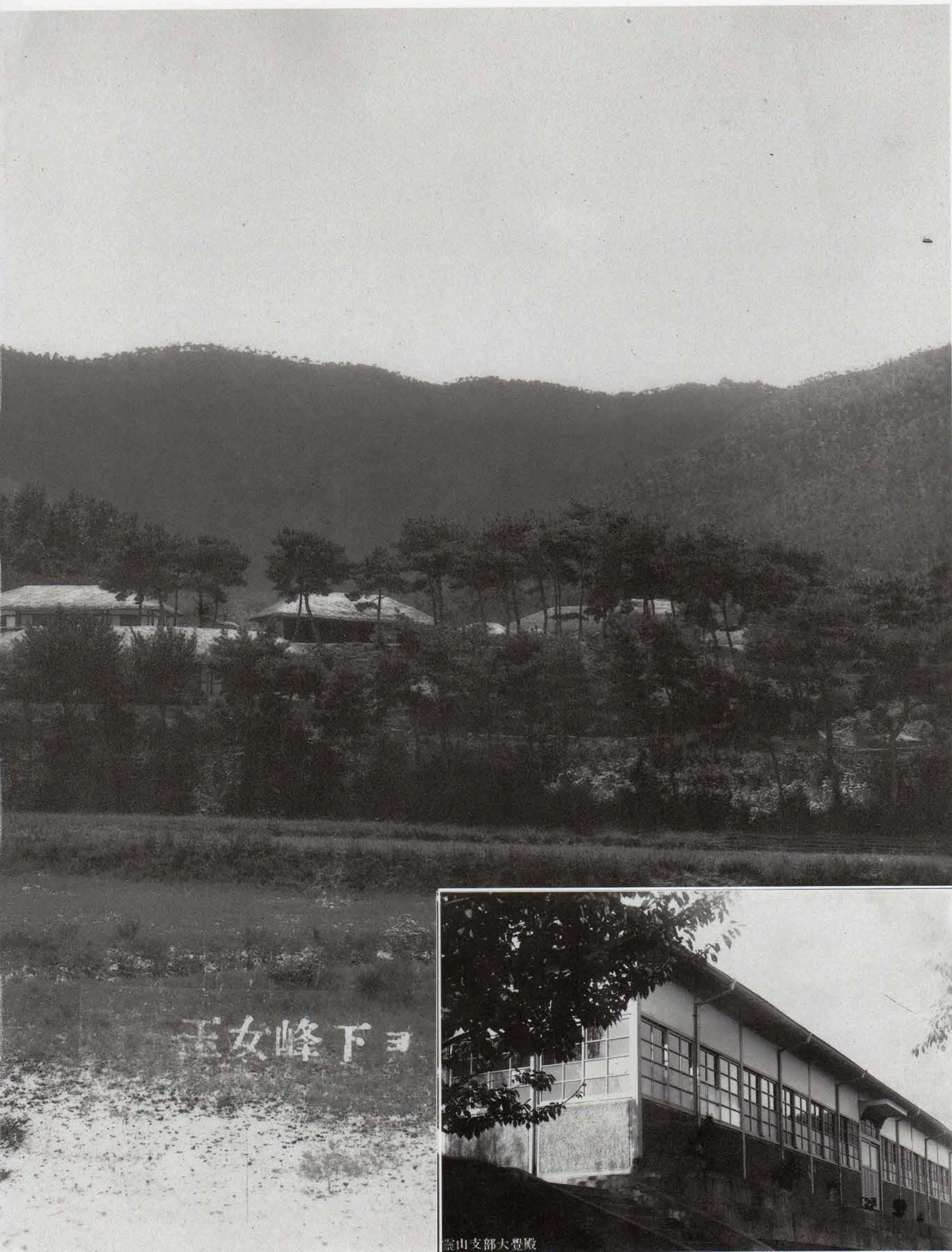
8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니라.

퍼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몸에

합한 이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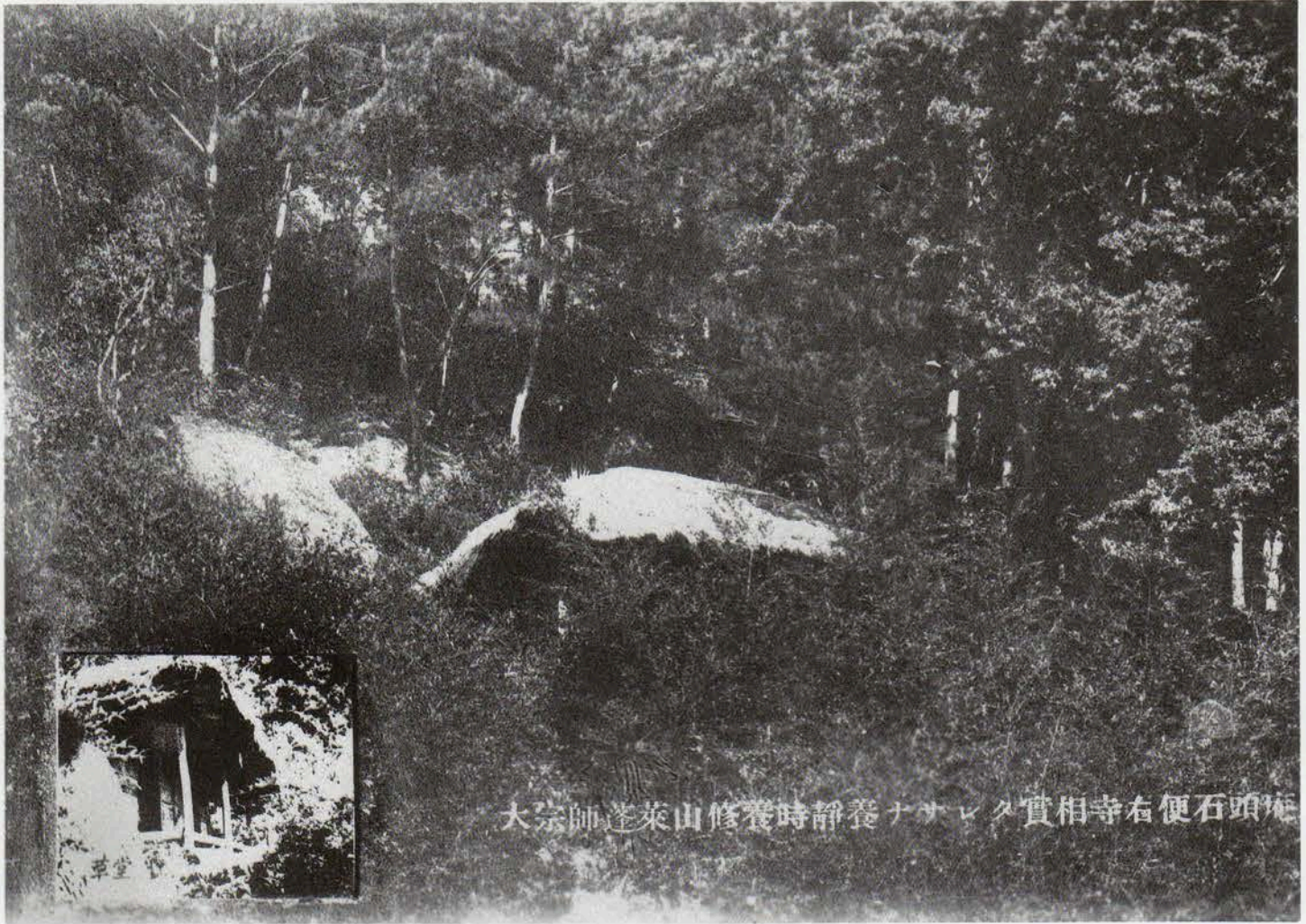


(위) 원기28년(1943)의 영산원 전경  
 (아래) 원기21년(1936) 12월에 건립된 영산원 대각전. 목조 합석집 건평65평으로 일산 이재철·사산 오창건이 감역하였다.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영광지방에 불법연구회가 크게 위세를 떨치게 되었고 영산학원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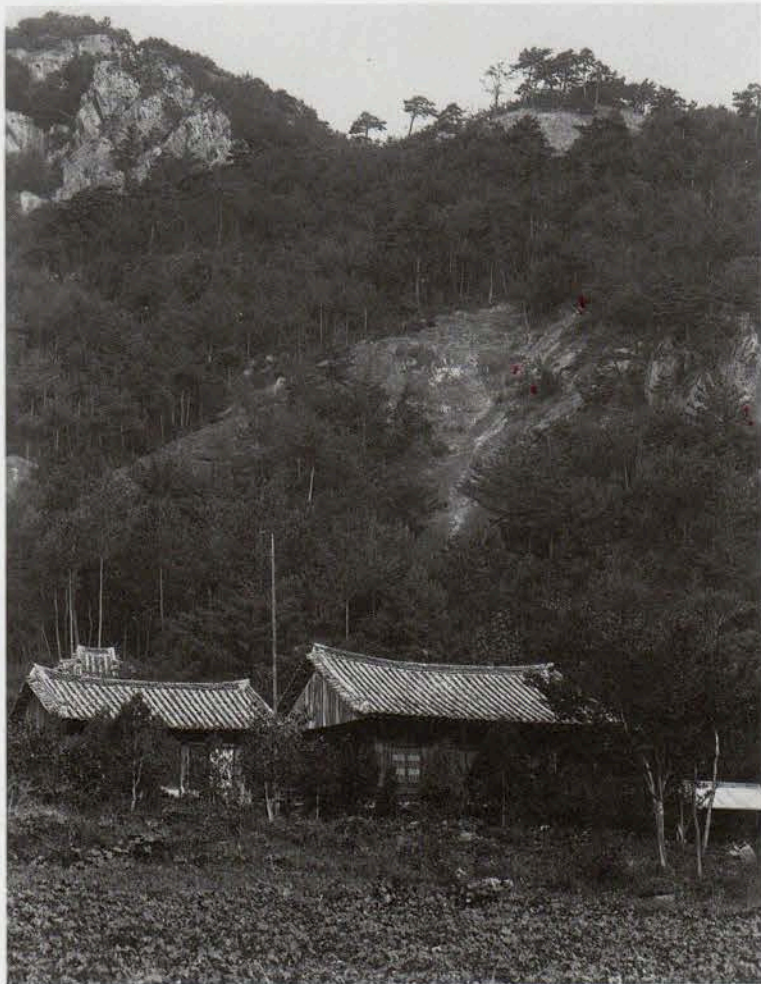


#### 일원상과 금산사 송대

법인성사 후, 대종사님은 수양처를 물색하기 위해 김제 금산사에 가시어 얼마간 머무르셨던 적이 있었다. 대종사님은 미륵전 앞 송대에 유숙하시며 교단 최초로 출입구 벽상에 일원상을 그리셨다. 그리고 영광으로 돌아가시어 산상기도 해제식을 기하여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셨다. 그것은 등상불 숭배를 할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아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자는 가르치심이었다.



大宗師蓬萊山修養時靜養ナサレタ實相寺右便石頭庵



#### 변산 봉래정사 수양

기미년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무렵, 대종사님께서 두 차례나 일경에 연행되셨다.

“개벽의 상두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다. 어서어서 방언 마치고 창생을 위한 기도를 드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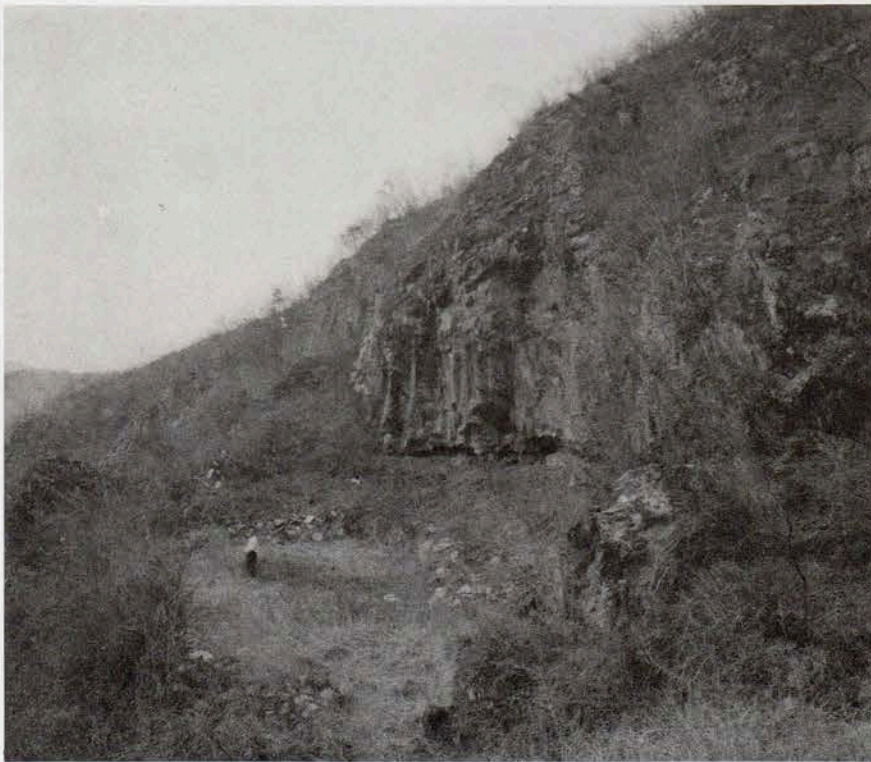
대종사님 방언역사와 산상기도를 마치고 부안 변산으로 들어가셨다.

그것은 새 회상을 열기 위한 교법정비와 창림인연의 결속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의 봉래 수양이셨다.

(위) 석두암 (아래) 당시 실상사 전경. 6.25동란으로 소실되고 현재 빈터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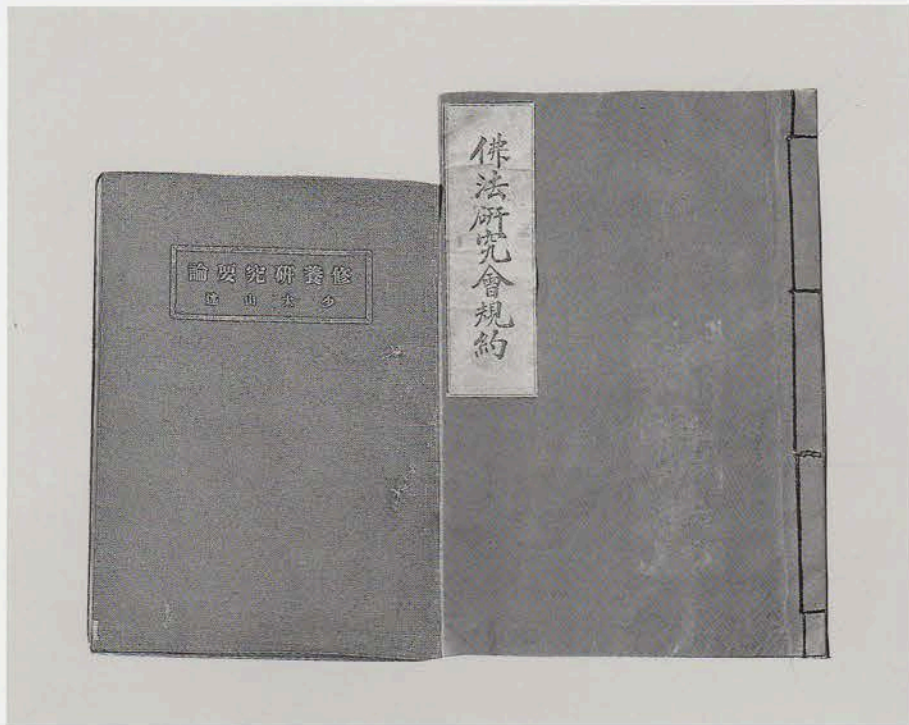
석두암터에 교법을 초안한 계법성지임을 기념하여 세운 「일원대도」 비



### 새 회상 창립

대종사님 대각하신 후 8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만 34세 되던 해 (1924), 전라북도 익산향 신흥벌에 새 회상의 기지를 마련하셨다. 부실되지 얼마 안되는 철로길 하나 뿐인 한미한 습리 부락(이리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인적 드문 광활한 황무지에 새 회상의 기지를 정한 것은 교통이 편리하여 각지 회원들이 내왕하기 편리한 점과 토지가 광활하여 가난한 회원들의 생업확충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갑자년 겨울, 신흥벌 도차재에 두채의 초가집을 건립하고 비로소 불법연구회 간판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위) 원기9년(1924) 6월1일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던 이리 마동 보광사. 1920년에 창건되어, 6.25동란 때 소실되어 그뒤 재건되었다.  
 (아래) 만덕산 김씨 산제당 터. 대종사님께서 처음 만덕산에 가신 것은 원기 8년 1월, 회상 창립인연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원기 9년 6월 두번째로 만덕산에 가신 것은 회상 창립 후 정신을 쉬고 조용히 선을 나시기 위해서였다. 만덕산 김씨 산제당은 만덕암(萬德菴)이라고도 이름한다.



# 佛法研究會規約

益山 佛法研究會教務部編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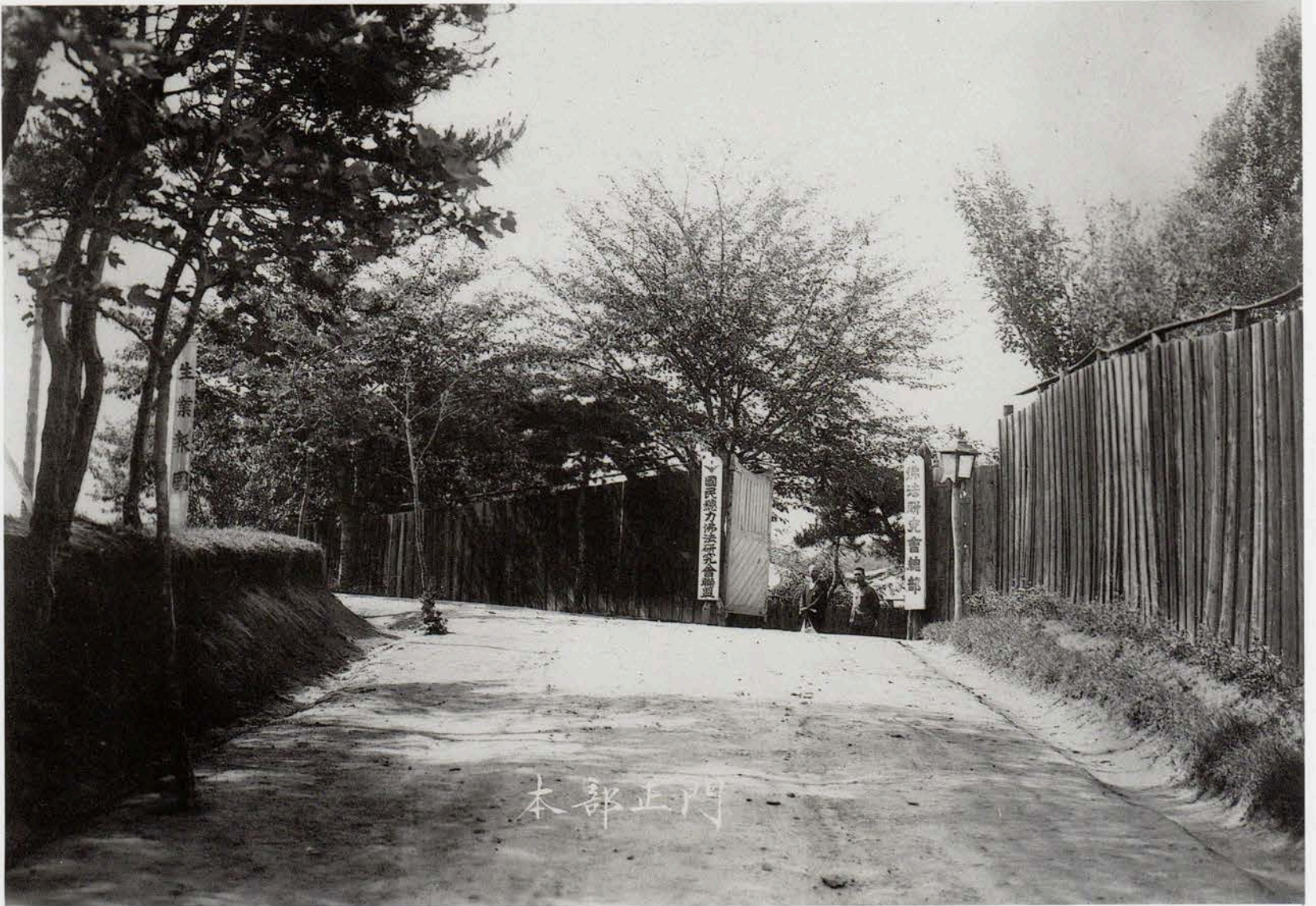
## 本會의 由來

本會의 由來는 朝鮮全南靈光郡白岫面吉龍里에 居住하시던 朴重彬先生께서 佛法을 연구하신바 精神修養하기를 主張하시며 理事研究하기를 主張하시며 모든 일에 取捨하기를 主張하시며 信忿疑誠으로 進行力을 삼고 不信貪慾懶愚로 捨捐件을 하여 일 업난대에 일고 보면 研究의 修養을 究치안하시며 일잇난대를 當하고 보면 取捨를 究치안하시며 衣食生活上으로도 拘束이 없시엇던 職業이든지 職業을 究치안하시며 또는 大正五年度에 佛法研究期成組合을 設始하시니 同志者 八九人이 貯蓄金은 七八千圓이라 每日組合員이 重彬先生의 指揮를 受하여 土地를 開拓하여 生活의 根源을 삼고 받이 되면 佛法의 實理를 研究하여 知識의 根源을 삼음으로 安樂한 生活이 되어야 모든 일에 依賴가 없어지고 自由와 自在을 得으며 부처님의 일으신 福足의 根源과 慧足의 根源을 理解하여 모든 사람의 耳目을 열어 알게 함이 있음으로 여러 사람이 相從됨에 自然佛法研究會가 成立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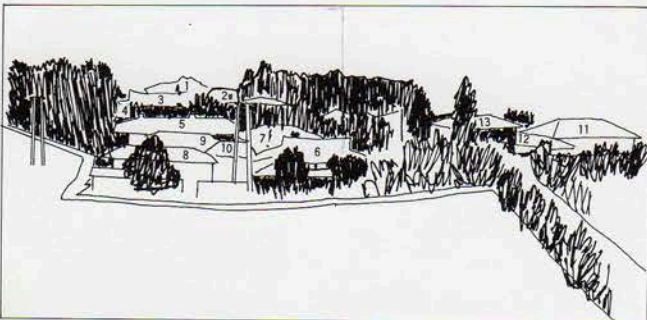
## 本會의 趣旨說明

混夢中에 있든 우리。醉中에 있든 우리。士農工商의 次序잇난 教育을 받지 못한 우리 相當한 사람을 쓰지 안이 하고 權勢와 財産形式을 쓰든 時代에 있든 우리。外邦文明과 物貨를 보지 못한 우리。發願업고 研究업난 우리。職業업시 높고 먹든 우리。每日 收入 支出을 알지 못하고 豫算업시 지내든 우리。有無識男女老少 善惡貴賤을 勿論하고 融通하여 밋어나 오난 宗教가 업든 우리。門閥잇고 家勢잇고 文筆이 有餘한 사람이야 宗教人이라 하든 우리。千人이면 千마음이 各々이요 萬人이면 萬마음이 各々된 우리。博愛心이 업고 合資心이 업고 感化心이 업든 우리。一萬物件의 根本과 實을 알지 못한 우리。一萬萬의 始終과 先後를 알지 못한 우리。善惡貴賤의 根本을 알지 못하고는 非의 利害를 알지 못하고 恨歎怨望에 究쳤든 우리。識心이 고 覺心이 난 우리로써 感覺업난 無情之物의 卍所 願仰祝하든 우리。나와 一身하나 도 濟度 못한 우리로써 여러 사람의

(위) 원기 12년(1927)에 간행된 노란책가위 《불법연구회규약》과 최초의 교서 《수양연구요론》 (아래) 《불법연구회규약》의 「본회의 유래」와 「본회 취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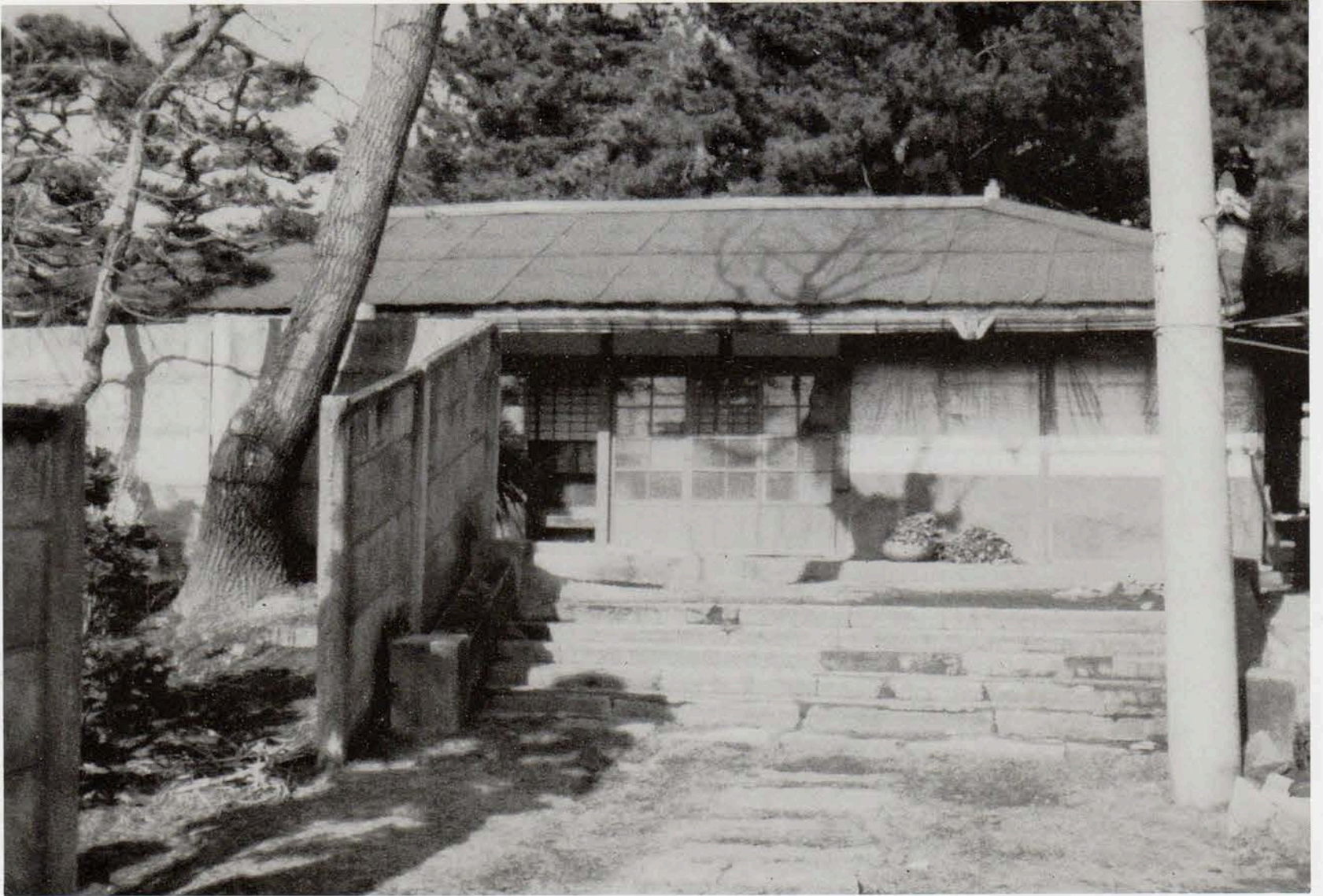
원기28년도(1943)의 총부정문



1금강원 2도치원 3중법실 4공회당 5양잠실 6박해원옥가  
 7양하운가 8이화진가 9박길선가 10이질성가 11청하원  
 12사무실 13박명성가 14권통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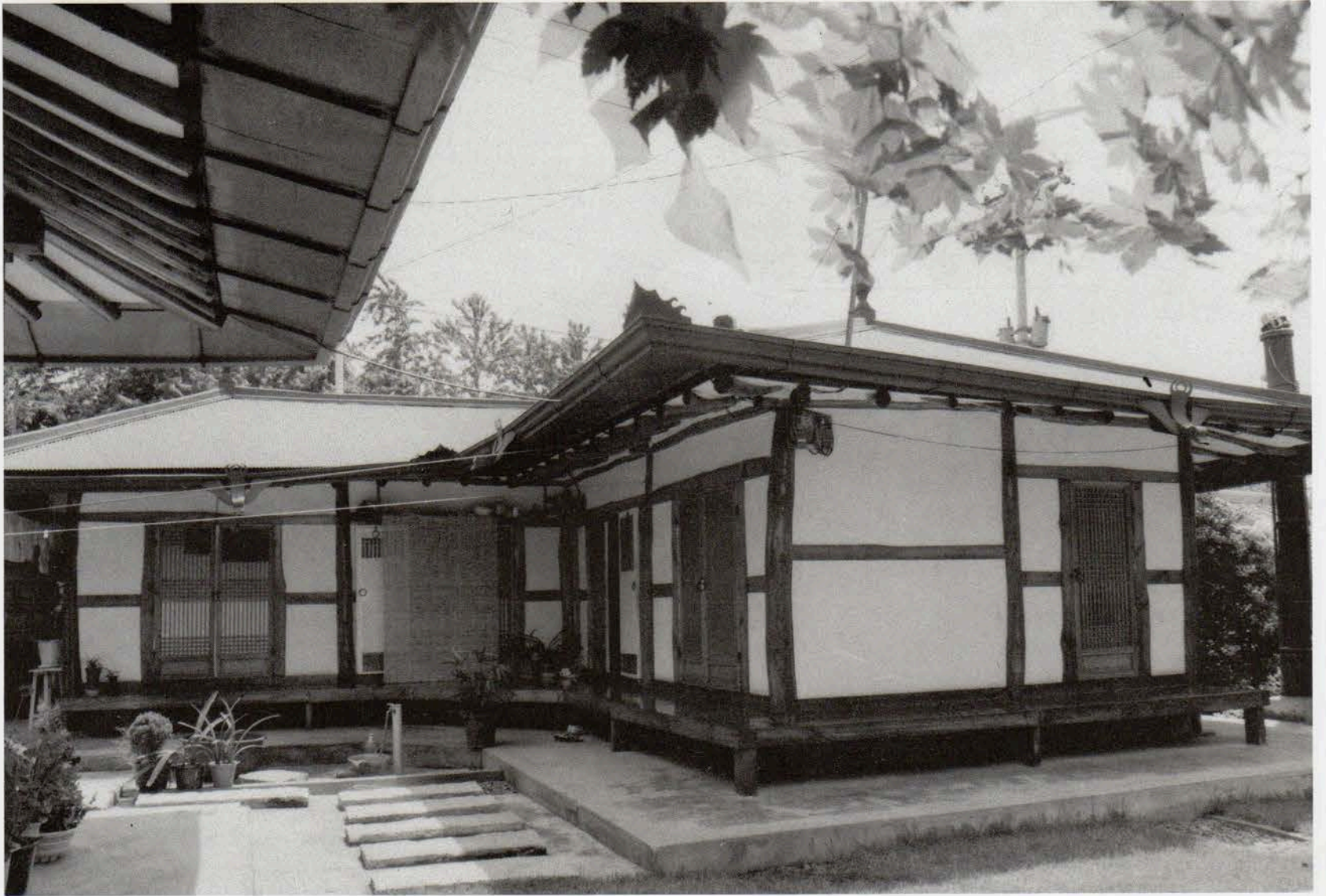


원기25년경 대각전에서 내려다 본 총부전경. 출가·재가가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 생활이었다.



**최초본관 도치원(道治院)**

원기9년(1924)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겨울에 준공한 최초본관.  
대종사님께서서는 도치원 서아실(서쪽방)에 원기13년 5월까지 주석하셨다.  
도치영상(盜治嶺上)에 세운 회관이라하여 도치암(道治菴) 또는 도치원  
(道治院)이라 이름하였다.



초기교단 유지대책으로 한때 운영하였던 옛방. 이곳에서 옛을 고아냈다. 현재 세탁부로 불리우고 있다.



**금강원 (金剛院)**

대종사님께서 거처하시던 단독 가옥으로 변산 봉래정사 석두암 아래 익산 신룡벌 잣배기에 마련한 최초의 조실이다. 4간 와가로 원기 13년(1928) 6월 22일에 건립하였다. 원기 22년(1937)까지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주석하셨으며 「금강원 설법전(金剛院說法殿)」이라 이름하셨다. 그뒤 부인선원 숙소, 여자 요양원으로 이용되었다.



공회당 (公會堂)

원기14년(1929) 봄에 건축된 9간 합석지붕의 대중 집회실이다. 원기20년(1935) 4월까지 이곳에서 정기 예회를 보았으며, 그뒤 아침 좌선, 정기훈련을 이곳에서 진행하였다.



**대각전 (大覺殿)**

총부 복숭아밭에 터를 닦아 당시 문화적 대기념관인 대각전을 지었다. 건평 84평 목조 와가로 원기20년(1935) 4월27일에 준공하고 본교의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인 일원상을 정식으로 봉불하였다.



송대 (松臺)

원기26년(1941) 총부 운동장 건너 송림 동산에 건축된 3칸 기와집.  
 대중사님께서 친히 감역하시고 만년을 수양하실 목적으로 송대라 이름지으셨다.  
 한때 내빈 숙소로 이용되었으나 뒤에 몸이 불편한 제자들의 요양소로 이용되었다.

創始會本  
(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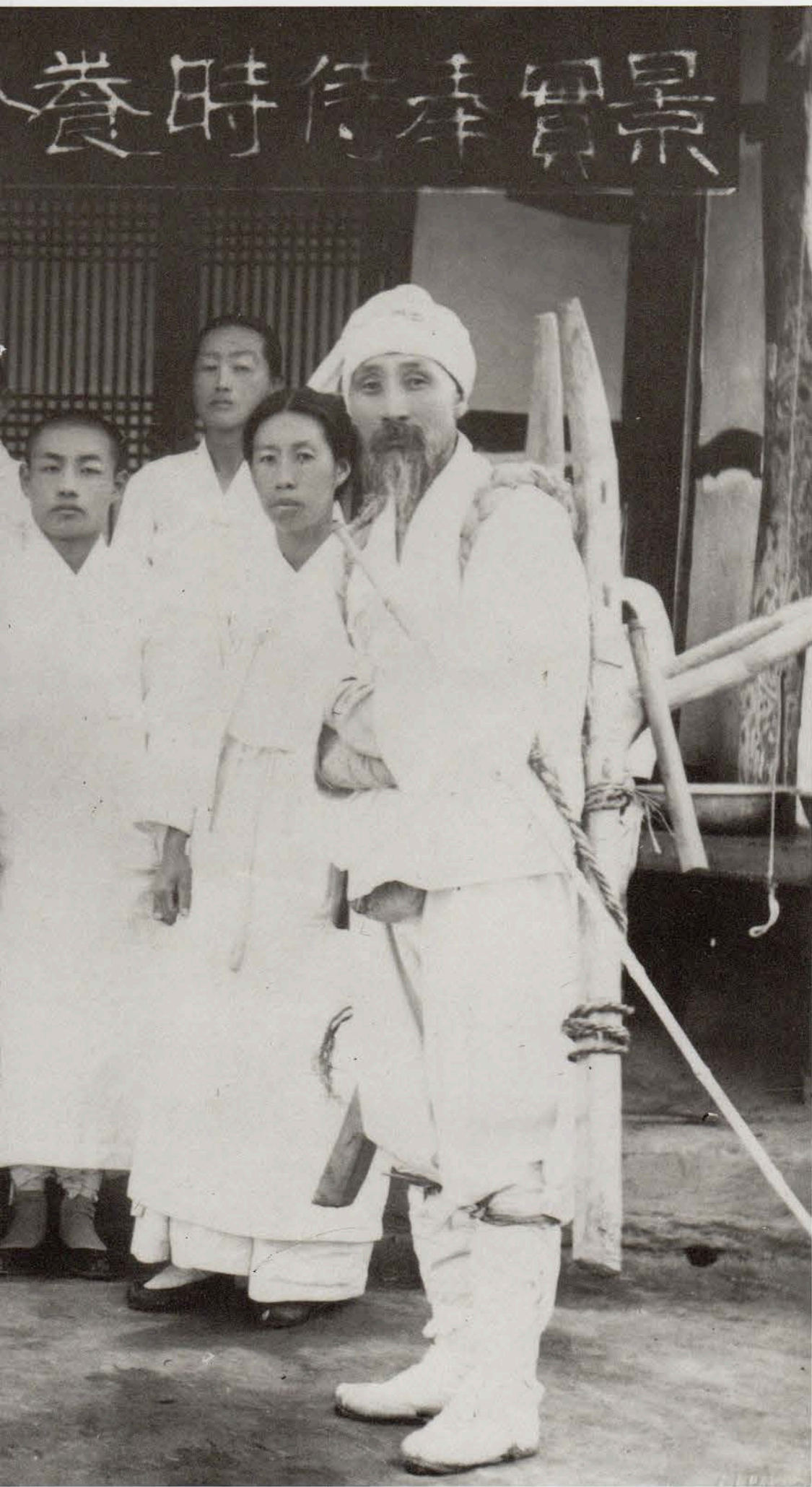
三年第一回紀念  
會員一屆(一)



원기13년(1928) 5월16일 창립 제1회를 기념하여 신축강당(현 구조실)을 배경으로 모든 참석 회원들 사진촬영. 뒤에 계양된 기는 불법연구회 회기(會旗). 두째줄 중앙 대종사님. (좌) 초대회장 서중안 (우) 2대회장 조송광.

逢萊精舍先生主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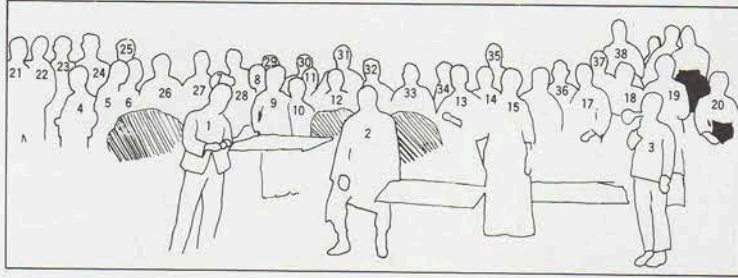


대종사님께서 봉래정사 수양할 당시의 시봉진들과  
 원기13년(1928) 5월16일 촬영  
 중앙 대종사님, 좌우 지계진 제자 오창건, 김남천  
 (왼쪽 바구니 든쪽부터) 이청풍, 장적조, 송규  
 장정수, 이만갑, 홍청송월, 구남수, 송도성, 최도화  
 김해월.

**초기교단의 영육쌍전(靈肉雙全) 생활**

종교가 영혼 구제에 치우치다 보면 육신 관리와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신과 육신을 아울러 건전하고 튼튼하게 하며 수도와 생활이 결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영육쌍전이다. 진정한 종교는 생활하는 종교 실천하는 종교여야 한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총부 인재양성단에서 운영하는 누에치기. 원기21년(1936) 6월12일 양잠실(현 정남숙소자리)에서, 봄누에 고치따기를 마치고 기념촬영. 인재양성단은 교육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발족된 단조적이다. 이 고치따기에는 총부 근방에 사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학생들과 총부 인재양성단원들 모두가 참석하였다. 이들 속에는 양하운 대사모님과 장녀 박길선도 함께 일하고 있다.



- 1 열 10아이, 2양잠주무 정일지, 3나팔부는 아이.
- 2 열 40아이, 5박길선, 6양도신, 7~10, 11이명훈, 12, 13손학경, 14전삼삼, 15오철수, 16이영호, 17박명성, 18권동화, 19이화진, 20이철성.
- 3 열 21, 22, 23김대거, 24송혜환, 25, 26양하운, 27, 28이공주, 29, 30, 31지환선, 32이장규, 33, 34이도신화, 35서공남, 36이덕신, 37박해원옥, 38



제 1회 기념식날 신축강당(구조실) 앞 양과밭에서 작업하는 농공부원들. 뒤에 보이는 초가(현 정화정사 자리)는 농공부 건물이다.



산업부 전경. 현재 원광대 음악관 경영관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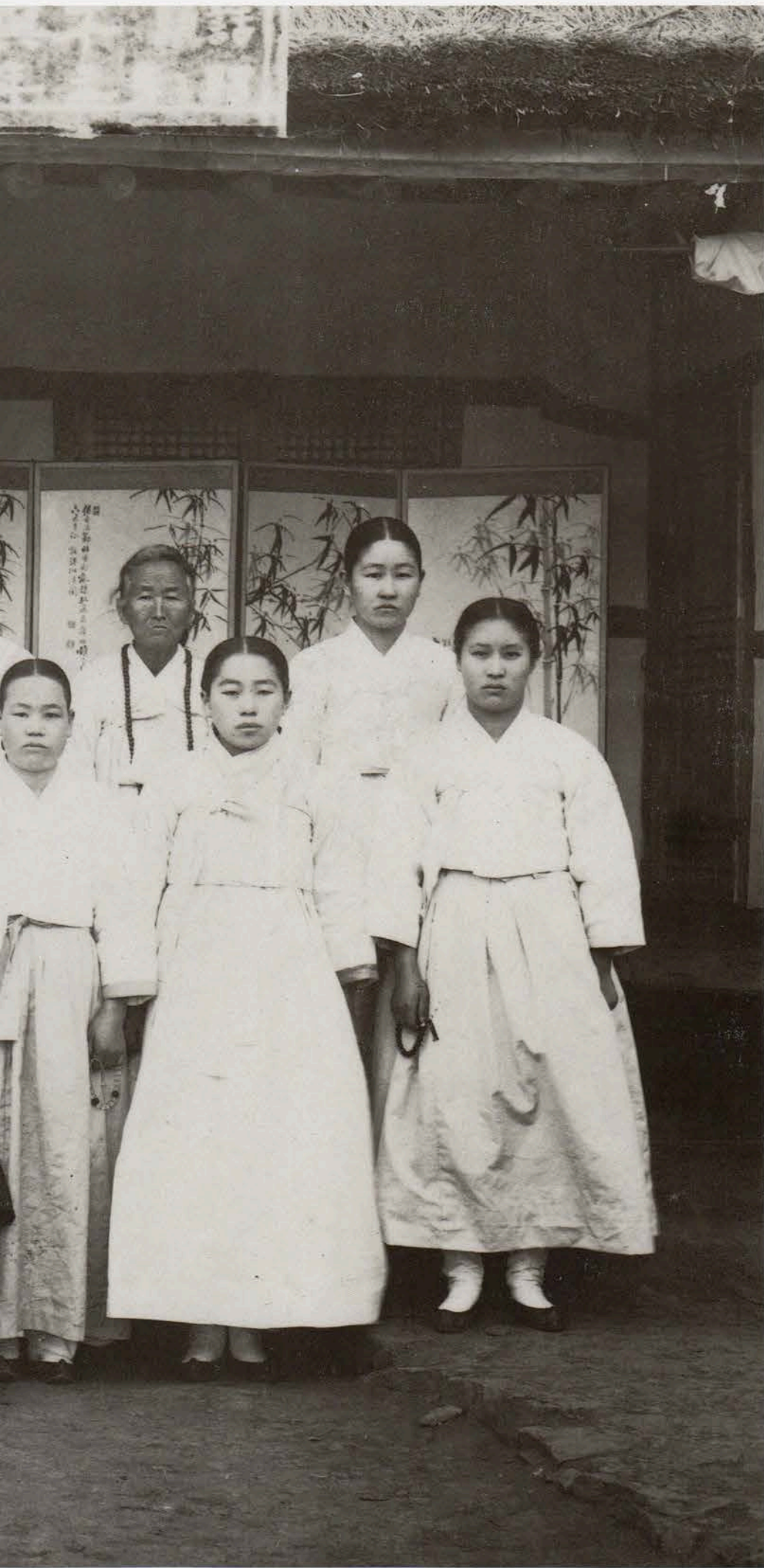
병인동선(丙寅冬禪) 남자부 기념사진.  
 원기12년(1927) 3월 촬영.

앞열 이춘풍, 김광선, 송민경, 문정규  
 서동풍, 조승광, 서종안  
 뒷열 한사람 건너 이동안, 박노신, 이준경  
 전을광(白衣꽃), 대중사님, 김남건  
 한사람 건너 이일근, 이완철, 박원석.

話頭不與萬法為侶  
野和元年丙寅冬禪







최초본관 도치원 앞에서 촬영한 병인동선(丙寅冬禪) 여자부 기념사진.  
 동선이 거진 끝날 무렵인 원기12년(1927) 3월 도치원 앞에서 촬영  
 배경 대나무 병풍은 초대 불법연구회장 서중안이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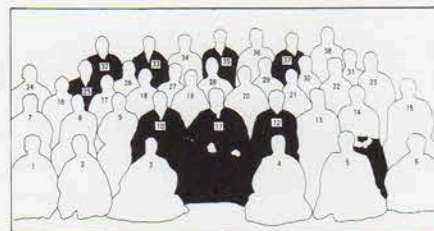
앞열 이침춘 정세월 최강동옥 송만경 이춘풍 박해원옥 권동화 이침풍  
 뒷열 강씨(박원석의 모) 정상보화 당청정화 박사시화 대중사님 최도화  
 노덕송옥 최상옥



影攝念化祥女部丁年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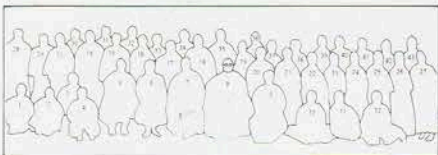
정묘동선(丁卯冬禪) 기념사진.  
13년(1928) 3월27일 촬영.



- 1월 1노덕송옥 2이만선화 3·4박공명선·박사시화  
자매 5구남수 6정삼보화
- 2월 7이청풍 8최강동옥 9이출진화 10송만경
- 11대중사님 12송규 13최도화 14조진권 15
- 3월 16조순환 17박해원옥 18권동화 19이동진화
- 20최상옥 21이청준 22조승광 23정일성
- 4월 24이보국 25이호준 26김광선 27이동안
- 28문정규 29김남진 30이재철 31박노신
- 5월 32이준경 33전음광 34송도성 35조갑중
- 36박대완 37송동환 38오창건

**첫번째 조실 금강원과 대종사님**

원기13년(1928) 6월22일 대종사님 거쳐하실  
 단독가옥으로 마련한 금강원(조실).  
 원기22년(1937) 까지 주석하시다가  
 영춘현(현 구조실)으로 옮기셨다.  
 사진은 무진동선(戊辰冬禪)을 기념하여  
 원기14년(1929) 3월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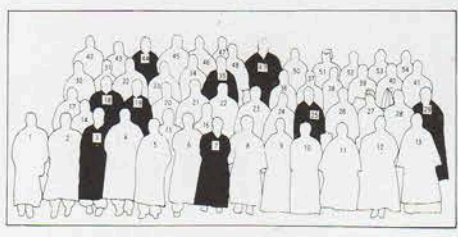
- 1월 1 송만경 2 이준풍 3 전음광 4 권대호 5 박대원  
 6 이통인 7 김광선 8 대종사님 9 최도화  
 10 노덕송옥 11 이민선화 12 전삼삼
- 2월 13 박노신 14 오창건 15 조갑중 16 송도성  
 17 성정철 18 박원석 19 박사시화 20 박길선  
 21 권동화 22 정세월 23 이대교 24 박해원복  
 25 이정풍 26 김영신 27 조순환
- 3월 23 이철국 29 조원신 30 이준경 31 김기전  
 32 이호춘 33 송통환 34 서대원 35 김남진  
 36 이보국 37 김정각 38 장적조 39 양하문  
 40 정삼보화 41 이출진화 42 이동진화  
 43 최상옥







기사동선(己巳冬禪) 기념사진.  
 새로 지은 공회당을 배경으로 원기15년(1930)  
 3월 촬영 공회당 현판에 「大房峴 說法室」  
 이라는 편액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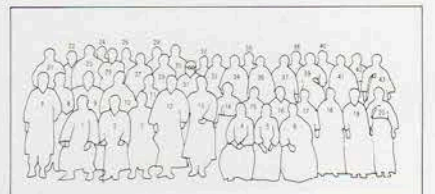
- 1월 1·2 이형국 3 이준경 4 김기전 5 김대거  
 6 이명진 7 권대호 8 조승광 9 구남수 10 전삼삼  
 11 이만갑 12 노덕송옥 13 정상보화
- 2월 14 이보국 15 문정규 16 송도성 17 이재문  
 18 이호준 19 이건양 20 박노신 21 조원선  
 22 이동안 23 송규 24 김정각 25 김삼매화  
 26 손학경 27 이만선화 28 이원화 29 이정준
- 3월 30 송일환 31 송혜환 32 김홍철 33 송봉환  
 34 성정철 35 김방철 36 조전권 37 정라선  
 38 조순환 39 권동화 40 이종진화 41 양하운
- 4월 42 오장건 43 박대원 44 서대원 45 김광선  
 46 정일성 47 김남진 48 전용광 49 대종사님  
 50 박사사화 51, 52 이대교 53 이동진화  
 54 박해원옥







경오동선(庚午冬禪) 기념사진.  
 무진년 1회 기념 새 봄을 맞으며 지은  
 신축 기념강당 영춘헌(迎春軒)을  
 배경으로 원기16년(1931) 3월에 촬영.  
 영춘헌은 원기22년 중법실로 이용되었다.



- 1월 1 송규 2 성정철 3 문정규 4 전삼삼  
 5 이강려화 6 구남수
- 2월 7 김병철 8 이준경 9 이호춘 10 김일현  
 11 서대원 12 전용광 13 조승광  
 14 권동화 15 오순각 16 이동진화
- 3월 17 이대교 18 정세월 19 민성경 20 정라선  
 21 조원선 22 정일지 23 김홍철 24 김남천  
 25 김대거 26 이완철 27 송백조 28 전중환  
 29, 30 김광선 31 대종사님 32 이만선화  
 33 노덕송옥 34 이만갑 35, 36 송자선화  
 37 김정각 38 손학경 39 황대일화  
 40 김삼보화 41 박사시화 42 박길선  
 43 김만공월



癸未年十一月廿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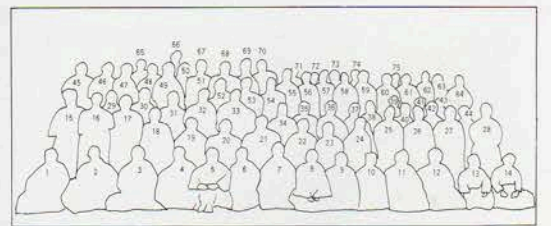
신미동선(辛未冬禪) 기념사진.  
 종법실 앞에서 원기17년(1932) 3월 촬영.  
 앞열 의자에 앉은 사람은 훈련교무 김기천.  
 뒷열 중앙 대종사님.



西千本面祭八年橋割物



계유동선(癸酉冬禪) 기념사진. 새 유리창문을 단 영춘헌(현 구조실) 앞에서 원기19년(1934) 2월9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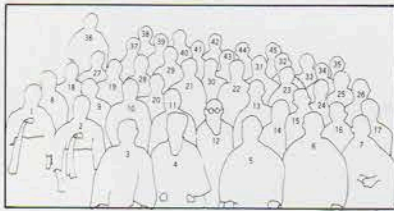
- 1 열 1 전구일 2 김대설 3 서대원 4 전중환 5 전용광 6 박도원  
7 김용주 8 이정만 9 정양선 10 오종태 11 박일춘  
12 조일관 13 오종순 14 서공남
- 2 열 15 장귀용 16 김대거 17 이운권 18 문정규 19 송규  
20 유허일 21 대종사님 22 이공주 23 윤채운 24 박사시화  
25 김정각 26 정라선 27 최형권 28 이덕신
- 3 열 29 김남천 30 김광선 31 조대진 32 김일현 33 김병철  
34 박해원옥 35 박길선 36 권동화 37 황대일화 38 박명성  
39 이성권 40 오철수 41 이정준 42 이영훈 43, 44 이만선화  
45 이군일 46 김정중 47 유성렬 48 정일지 49 김대근  
50, 51 송혜환 52 박창기 53 조갑중 54 신영기 55 장적조  
56 최강련화 57 조순환 58 이도신화 59 김만공월  
60 김성전화 61 진정리화 62 이성초 63 진삼삼 64 이대교
- 5 열 65, 66 이준경 67 송혜환 68 김홍철 69 이재철 70 김형오  
71 정삼보화 72, 73 최수인화 74 노삼구화 75



始創十九年第十九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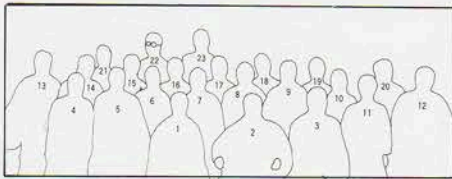


갑술동선(甲戌冬禪) 기념. 종법실 앞에서 원기20년(1935) 2월15일.



- 1열 1 박영권 2 이경순 3 박형현 4 이군일 5 송도성 6 김홍철 7 유평진  
 2열 8,9 이운외 10 신공선 11 정삼리화 12 대종사님 13, 14 서종인 15, 16 정병조 17  
 3열 18 이원택 19 이원화 20, 21 김호연 22 오효종 23 정계환 24, 25, 26  
 4열 27 김태상목 28, 29, 30, 31 김서룡 32 이건중 33, 34 조희열 35 김성룡  
 5열 36 정중선 37 이건준 38 오천권 39, 40 이사은 41 이광오 42 이명진 43 김형진  
 44 이문권 45 미상

영산학원 을해동선(乙亥冬禪) 기념. 원기 21년(1936) 3월 촬영.  
 2열 중앙 대종사님, 앞줄 왼쪽부터 의자에 앉은 순대로 박형현(박영권의 조부), 학원교무 이군일, 영광지부장 송도성, 신흥지부교무 김홍철.



1월 1경성지부 여교무 이동진화 2대종사님 3남교무 이원철  
 2월 4김인현 5심오운 6이정원 7관우연화 8서기 서대인 9이현국 10,11 손위일 12 순교 지현선  
 3월 13,14 이경원 15 이성각 16 최정직 17 성성원 18 이성권 19 김원 김삼매화 20 최중제화  
 4월 21 박광전 22,23 유성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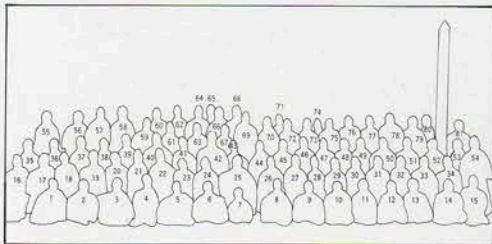
始創二十一年丙子第三回冬禪總部禪員一同紀念 (一景寫)

병자동선(丙子冬禪) 기념, 원기 22년(1937) 2월 중법실 앞에서



원기18년(1933) 2월 임신동선(壬申冬禪)을 기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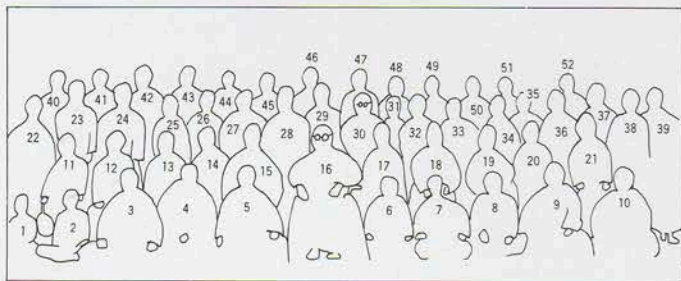
무인동선(戊寅冬禪) 기념사진.  
 조가지봉을 함석 지붕으로 개수한 도치원 앞에서  
 원기24년(1939) 2월 15일 촬영.  
 동선중에 팔산 김광선이 열반을 당하여  
 선객일동은 가슴에 복표를 달고  
 애도의 분위기에 훈련을 냈다.  
 이 해 부터 처음으로 교무선을 분리해서  
 40일간 훈련을 냈는데 동선기념 사진은  
 재가·출가가 함께 촬영하였다.



- 1월 1박도환 2김정중 3전구일 4~7미상 8조전권  
 9김영신 10박영권 11정양선 12오중태 13이명호  
 14서공남 15임현기화의 딸
- 2월 16송도성 17이완철 18김남천 19이귀생 20조성욱  
 21정일성 22박허주 23송벽조 24유허일 25대중사님  
 26박사시화 27개성교도 28정형섭 29노정신행  
 30, 31, 32지환선 33황대일화 34전삼삼
- 3월 35미상 36김대거 37서대원 38정일지 39박재봉  
 40김지성의 조부 41박원석 42박수권 43오철수  
 44조장환 45솔리 박참판부인 46노우정화  
 47양하운 48박명성 49, 50중재화 51노삼구화  
 52손학경 53권동화 54양도신
- 4월 55유성렬 56, 57이도수 58박창기 59김형오  
 60, 61조갑중 62김병철 63, 64, 65, 66김대설  
 68강익하의 아들 69이공주 70황정신행 모친  
 71김삼매화 72김인현 73정석현 74이도신화  
 75여상화 76, 77개성회원 78정관음형 79정세월  
 80개성회원 81이만갑







- 1월 1·2 박광진·광형형제 3 김병철 4 김정중 5 전중환 6 오중태 7 조일관 8 정양선  
9 최도화 10 정세월
- 2월 11 박창기 12 이만영 13 유허일 14 김남전 15 문정규 16 대중사 17 이성초 18 전삼삼  
19 김정각 20 오철수 21 조전권
- 3월 22 유성렬 23 박길진 24 김형오 25 송규 26 조갑중 27 김대거 28 전용광 29 이명진  
30 이공주 31 박길신 32 이정준 33 김만공월 34 박해원옥 35 권동화 36 김정도  
37 이성권 38 이정만 39 김용주
- 4월 40 전구일 41 김홍철 42 송혜환 43 이건양 44, 45 이재철 46 신영기 47 서공남  
48 박일준 49 이민선화 50 정라선 51 이대교 52 김태신

(위) 원기19년(1934) 칠월 칠석날, 대종사님과 은자녀들의 제1회 은법회(恩法會) 기념촬영. 맨 앞줄에 앉은 아이가 대종사님의 차남 광령과 광진, 뒷줄 왼쪽에서 4번째 장남 광진 (아래) 칠월 칠석날 모든 제자들과 흥법회라 이름하여 기념촬영.

### 제자들과 함께

나라 잃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하여 일제치하에서 하루하루 암담하게 살아가는 우리 겨레에게 대종사님은 새 삶의 길을 제시하시고 희망과 꿈을 심어주셨다. “너희들 내한테 돌렸다고 한 세상 인난 쪽 잡고 살아라. 이 회상에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너희들이지만 그 오롯한 열의와 정성은 저 서울 장안에 내노라 하는 신식청년들하고 안 바꾼다”

대종사님은 청소년들이 출가하여 도량을 청소하는 하찮은 일까지도 세계사업하는 것이라 격려하셨다.

“우리 회상에 모래 하나 쓰레기 하나 버릴것 없다. 버리기 전에 그 활용할 곳을 찾아라”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깎는 말을 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조선징, 조선징, 하고 스스로 욕하는 말을 하지 말게.

아침 조(朝) 빛날 선(鮮), 얼마나 좋은가. 아침에 빛이 나면 그냥 자꾸 올라가 한 공중에 솟으면

온 천하가 다 밝아. 금강산(金剛山)이 있는 머리에 우리 조선이 드러나. 그래, 우리 금강산을 빼갈 것인가.

도둑질을 해 갈 것인가. 하늘이 점지해 주신 금강산이여.

그러니 금강산의 주인이 여기에서 난다. 조선에서 나. 그러므로 금강산 구경하러 오대양 육대주 사람들이

전부 와. 조선으로 도학공부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 실력을 키워. 금강산 주인될려면”

그 어려운 시기,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암담한 시기에 대종사님께서서는 힘없는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꿈과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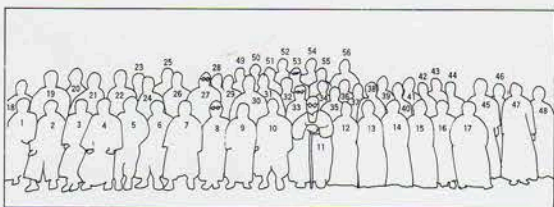


**대각전의 건축과 일원상 봉안**

원기20년(1935) 4월28일 대종사님 대각 20돌을 맞아 대각전을 준공하시고 그 정면 불단에 심불일원상이 정식으로 봉안되니, 이는 새 회상이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여 종교의 체제를 완전히 갖춘 중대한 사실이었다. 대종사님 대각 직후 「일원대원(一圓大圓)」 등 경축가를 부르시고 등상불에 대신하여 심불 일원상을 직접 그린바도 있으셨으며, 교법을 제정하실 때 사은즉일원(四恩卽一圓)의 신앙법을 꾸준히 구상해 오셨으나, 이에 이르러 비로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확정 시행하셨다. 대각전 준공일에는 500여명 신도들이 운집하였다(원기20년 4월28일 촬영)



원기 20년 (1935) 4월 28일 총회 요인기념



- 1 열 1 전응광 2 정일지 3 이완철 4 송규 5,6 서규석 7 송도성  
8 유허일 9 송백조 10 조승광 11 대중사님 12 이대교  
13 김성천화 14, 15 박해련화 16 신원오 17 지환선
- 2 열 18 이운권 19 김형오 20 박허주 21 서대원 22 이재철  
23 윤귀국 24 이군일 25 조희석 26 이건양 27 김광선  
28 송일환 29 양원국 30 박재룡 31 오창건 32 조원선  
33 김영신 34 이공주 35 조전권 36 임철보화 37 정관음행  
38 김성명화 39 이성각 40 성현주 41 임기선 42 이원화  
43 김인철 44 장적조 45 권동화 46 박해원옥 47 이동진화  
48 이만갑
- 3 열 49, 50 이만영 51 김정중 52 김홍철 53 박대완 54 조갑중  
55, 56 송혜완

紀念會要時總會總





四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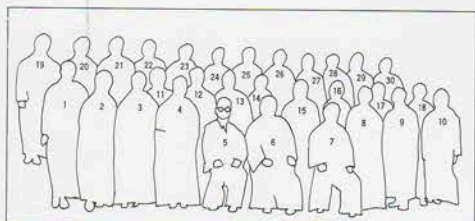
天下鑑之位  
父母下鑑之位  
同胞應鑑之位  
法律應鑑之位

少太山書

聖呪

永天永地永保長生  
萬世滅度常獨露  
去來覺道無窮花  
步之一切大聖經

少太山書



1 월 1 양혜련 2 유장순 3 서대인 4 조전권 5 유희일 6 대종사님 7 송규 8 김영신 9 김지현 10 이성신  
 2 월 11 홍두옥 12 양도신 13 이명훈 14 박순업 15 박복원 16 이태연 17 고현중 18 이정만  
 3 월 19 김봉식 20 권우연 21 이경순 22 윤순배 23 정양진 24 오종태 25 정양선 26 김태신  
 27 박은섭 28 서공남 29 조일관 30 신제근



원기 27년(1942) 4월 27일 1대 2회 총회를 기념하여 여제자들과 대각전에서



원기 28년 (1943) 1월 31일 남녀전무출신자 기념촬영



대종사님 열반 발인식을 마치고 대각전 앞에서 여제자 일동. 원기28년(1943) 6월7일 촬영.



**청하원 (淸河院)**

서울 제자 이공주·박창기 모자가 출가 전무출신하기 위해 원기18년(1938) 8월 총부 입구에 건립한 사가. 원기21년(1936) 9월 이리경찰서 파견 사찰형사가 이 집의 일부를 강제 징발하여 주재하였다. 그뒤 내빈 응접실로도 이용되었으며 이공주의 아호를 따 청하원이라 이름한다.

**구정원 (舊政院)**

원기 20년(1935) 3월, 재미교포인 신영기가 귀국하여 자신의 사가로 지은 4간겹집 기와집이다. 원기 22년(1937) 5월 3일 총부로 기증하여 49년(1964) 8월까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옛 교정원 사무실이었다 하여 구정원이라 부른다.



대종사님께서 최후 법설하시던 날(28.5.15). 대각전 가는 길가 소나무 밑에서 놀다가 군호에 맞춰 일제히 대종사님을 향하여 경례를 붙인 총부에 사는 아이들.  
 사진은 원기28년(1943) 1월 17일 유년회 제 2회 기념촬영

**정신원 (淨信院)**

원기 26년(1941) 서울 교도 황정신행이 총부에서 수양할 목적으로 추산서중안의 집터에 지은 사가집. 총부에 회사하여 사무실 간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원기25년(1940) 4월27일 총회기념 제1회 지방대항 강연대회. 오전 9시부터 30명의 지방 연사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용쟁호투의 강연회를 벌였다. 백번 들어도 새롭고 천번 들어도 참되어 실로 귀신이 울고 봉황이 춤출만큼 좋은 성적을 내어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대종사님께서서는 엄정한 점수를 매겨 1등 이병오, 2등 이세욱 김용섭, 3등 최상욱 황정신행 유흥복 그리고 김정용이 최연소로 특선에 올랐다.



원기26년(1941) 4월27일 총회기념 제2회 지방 대항 강연대회. 23인의 강사가 등단하여 열렬한 기음을 토하매, 청중은 만장의 갈채로 환희용약하여, 혹은 일어나 춤을 추고 혹은 앞에 나서서 절을 하여 무상대도의 감흥을 주었다. 대종사님 친히 채점을 하여 특등 1인, 2등 4인, 3등 6인을 선발하여 상장을 수여하셨다.



유성렬의 결혼식 기념. 원기 27년 (1942) 12월 11일 대각전에서



장남 박광전의 결혼식 기념. 대종사님 생시 최후의 사진이 되었다. 원기28년(1943) 1월7일 대각전에서



돈암동 앵두나무골 경성지부 신축기념 (원기 18년 11월 3일)



1열 백준명화, 김은성, 남부민교무 김영신, 이정혜, 윤순배의 고모  
 2열 양원국, 김준양, 박허주, 하단교무, 김기전, 대종사님, 통신부장 이공주, 황대일화, 김종성  
 3열 임기선, 세사람 건너 김대명화, 윤문선, 김성명화, 박정순  
 4열 구양근, 임정술, 장적조, 임현기화, 한사람 건너 신영기, 이사국



초량지부를 방문하시어 교도들과 원기24년(1939) 3월31일  
 앞열 왼쪽부터 의자에 앉은 순대로 진음광, 대종사님, 초량지부장 이권우  
 남부민지부장 박허주, 초량지부 보교 정라선과 교무 조전권



남원지부 동충리 들 가운데 처음 마련한 회관 낙성기념 (25.3.23)



석굴암 탐방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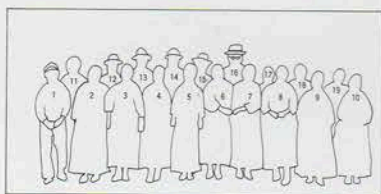
원기16년(1931) 10월 초 조송광 회장과.

대종사님 처음으로 경상도 여행을 나서 부산에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시고 동래 범어사, 양산, 통도사, 경주 토함산 석굴암을 거쳐 경북 월성군 현곡면 구미용담 수운 묘를 찾으셨다. 이 여행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범인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암시를 남기셨다.

통도사 법당 법좌에 오르시어 무언가 예시를 하시는가하면, 석굴암 방명록에는 「저 무정한 석불도 모든 사람의 찬의를 받거든 하물며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하고 스스로 불려거사(不侶居士)라 칭하셨다.



박문사에서 경성교도 박해산 김삼매화, 차남 광령과 함께 (원기20년)



앞줄 1정광훈 2조순환 3이정화 4조전권 5박진오 6김영신 7김태신 8,9정세월  
 정삼보화  
 뒷줄 11조전권의 제남 12전일 13이준경 14전음광 15이만영 16대종사 17이원륜  
 18이태연 19오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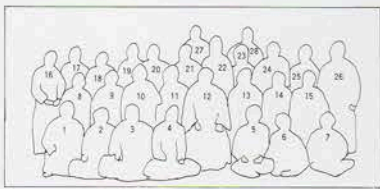
임실 운암강담에서 원기 23년(1938) 5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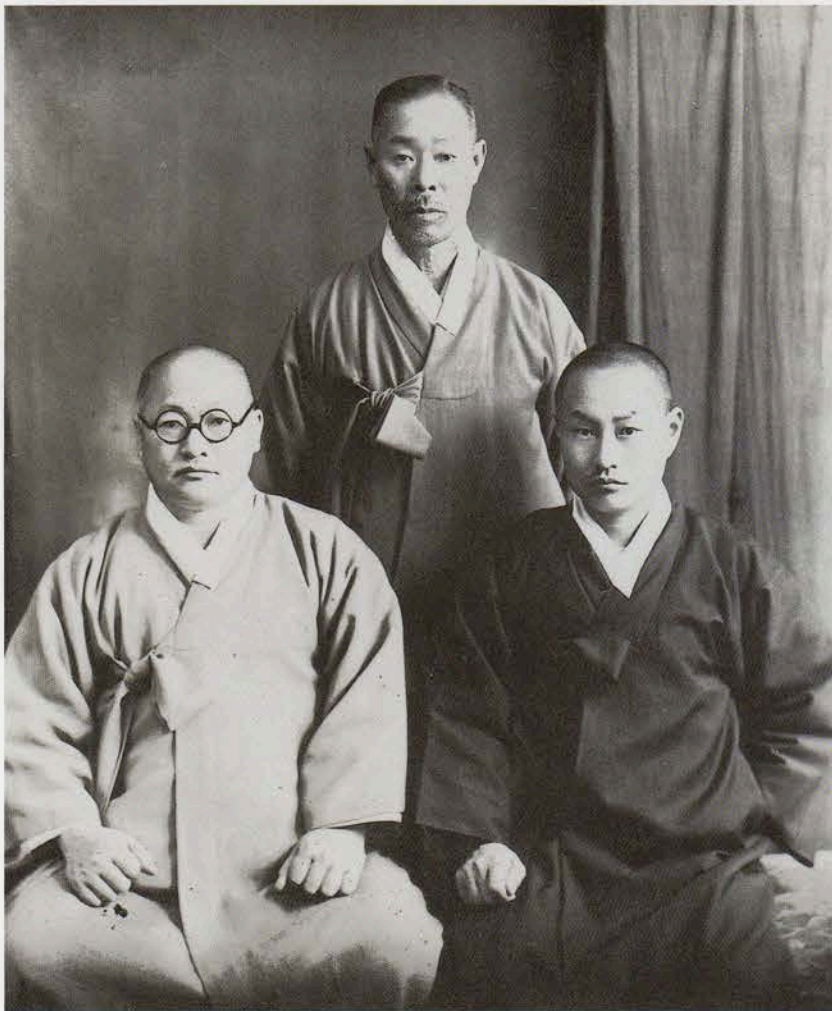
도산 이동안 열반 추도식장. 대각전 법상에서 (26. 5. 10)



昭和十六年五月撮影(45歳夏) 道山陸翁葬禮畢後



- 1 열 1 이태연 2 이순석 3·4 도산의 유자녀 성신·정만 자매 5 이은석 6 이철행(2남), 7 이공전
- 2 열 8 진장관옥(미망인) 9 이수옥(장녀) 10 이호준 11 이재철 12 대종사님 13 이형기  
14 이완철 15 이천갑
- 3 열 16 박영권 17 이화진 18 박명성 19 이건양 20 정계환 21 이운권 22 이용행 23 박종근  
24 김홍철 25 김영후 26 이광오(장남)
- 4 열 27 김백현 28 이학행



(위) 경성지부에 근무하는 이성권 이동진화 서대인과 함께 (원기 17년경)  
(아래) 원기 21년경 (1936) 부산남부민교도 박허주, 전음광과 함께



(위) 원기 20년 (1935) 여름, 대각전에서 민성경 조진권 이창규 이영훈 정세월 서공남과 함께  
 (아래) 원기 25년경 (1940) 서울에서 박해산 서대원 박창기 이완철과 함께



(위) 서울에서 유성렬 박광전과 함께 (원기19년경)  
 (아래) 원기13년(1928) 음력 2월, 정묘동선중에 전음광 일가족과 습리 부자 김도영이 초청한 공양에 응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진관에 들러 촬영. 앞줄 전음광의 장모 김만공월, 장남 팔로, 대종사님, 모친 전삼삼과 장녀 전팔근. 뒷줄 전음광, 차남 권대호, 처 권동화.



(위) 원기27년경 정일지 일가족과 대각전에서. 앞줄 대종사님 모시고 동생 정익수와 정일지.  
 뒷줄 정일지의 자녀들 양진·라선·양선자매와 치조카 김형오, 광훈·학현 형제  
 (아래) 원기27년(1942) 경 조실앞에서 김석규와 함께

### 일제수난하(日帝受難下)의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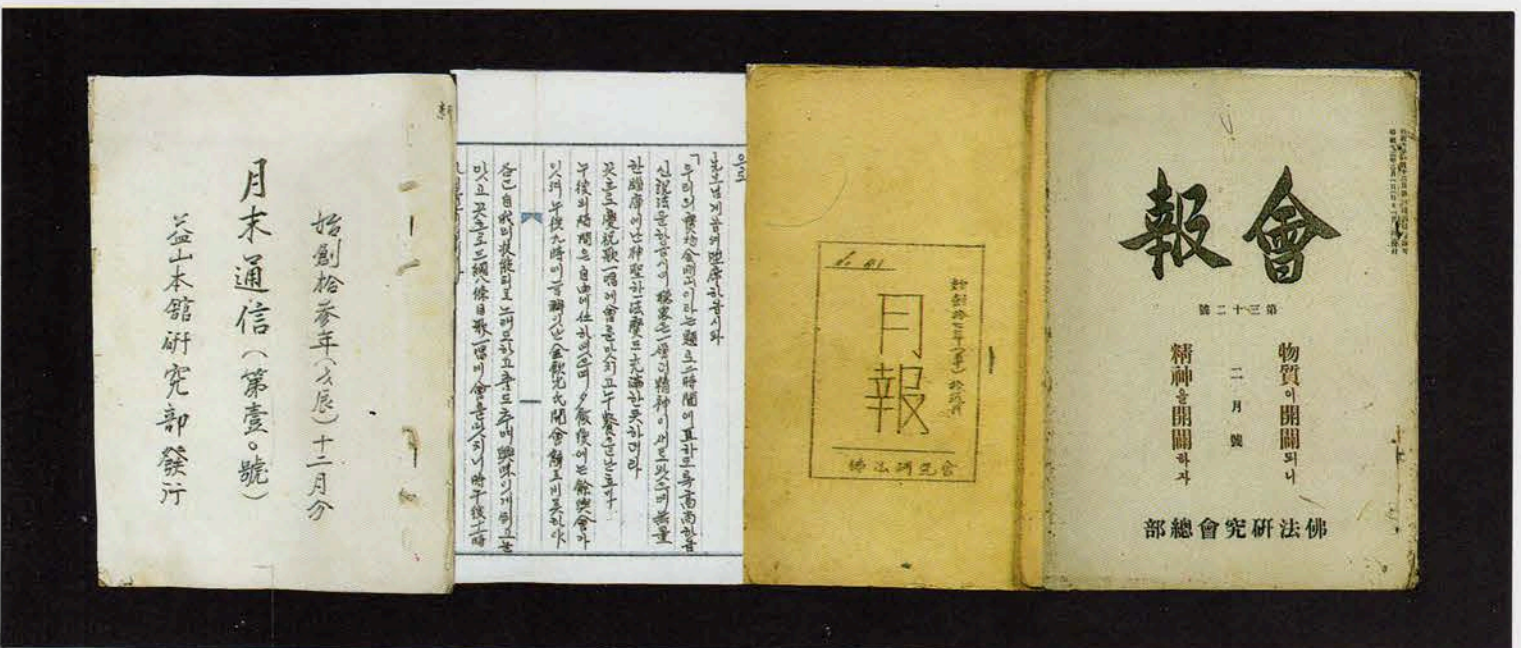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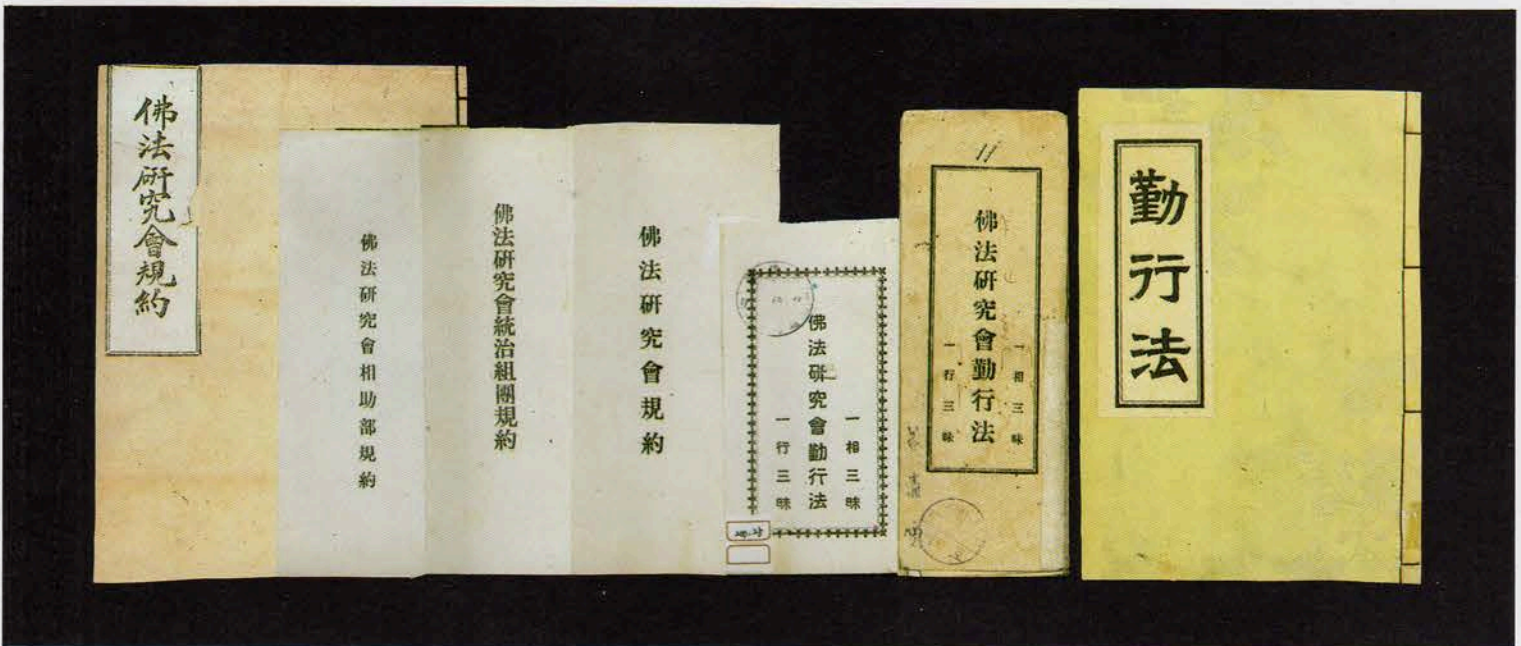
당시의 신흥종교들이 재(財)와 색(色) 두 방면의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일경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다. 그러나 불법연구회는 털끝만한 착오가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서 서로 말하였다. “불법연구회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이 말을 전해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참다운 도덕은 개인·가정으로부터 국가·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큰법이니,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인가” 대종사님께서서는 일정하에서 그들과 대질리거나 맞싸우지 않으셨다. 아무리 못된 일경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며 감화시키셨다. 일경을 미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따름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따름이라. 우리의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누구라도 끝내 해하고 막지 못하리라”



이리경찰서장 가와무라 마사미(夏村正美:오른쪽)가 상충부의 지휘관을 안내하여 총부를 방문. 가와무라는 대종사님의 도덕과 경륜을 흠모하여 이리경찰서장 재직중에 자주 총부를 방문하였다. 그는 교단 존폐가 위태할 때마다 사전에 알려주어 일제의 압력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조실 앞에서 기념촬영.



박문사 주지 우에노(上野:오른쪽)스님과 《불교정전》을 발간하도록 힘써 준 김태흡스님(왼쪽)과 함께.  
원기27년(1942) 청하원 앞에서



(위) 초기교서 《수양연구요론》 《육대요령》 《삼대요령》 차례로 발간되어 《정전》으로 집대성되었다.  
 (가운데) 근행법과 각종 규약 (아래) 정기간행물 목사본 《월말통신》과 프린트본 《월보》.  
 원기20년에는 활자본 《회보》로 제호를 바꿔 간행하였다.







종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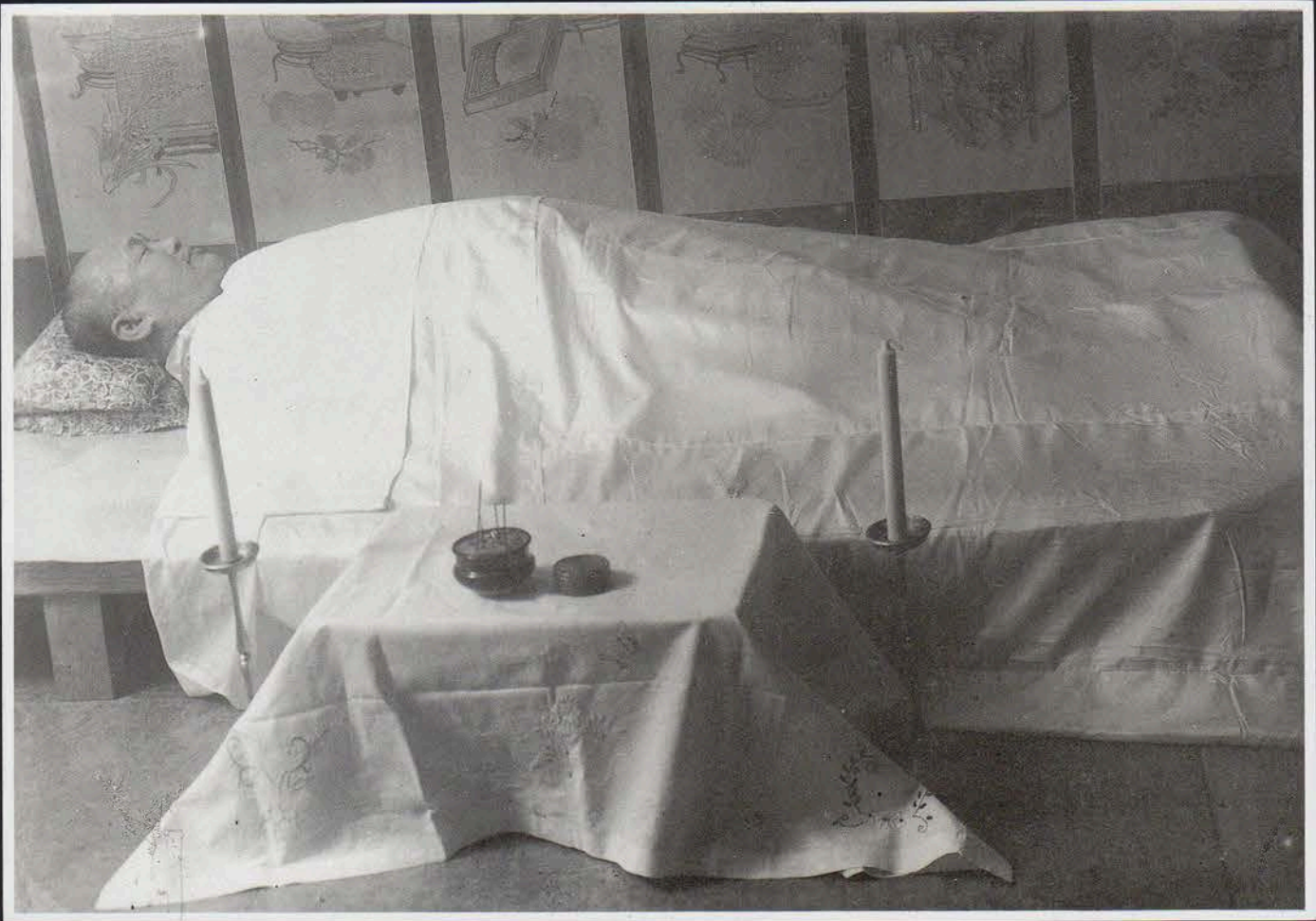
원기22년(1937) 부터 열반시까지 5년간 대종사님 주석하셨던 조실. 1회총회부터 사무실과 선방으로 사용하던 것을 원기22년 5월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금강원에서 조실을 옮겨왔다. 유제 송기면(裕齋 宋基冕)의 글씨로 「宗法室」이란 현판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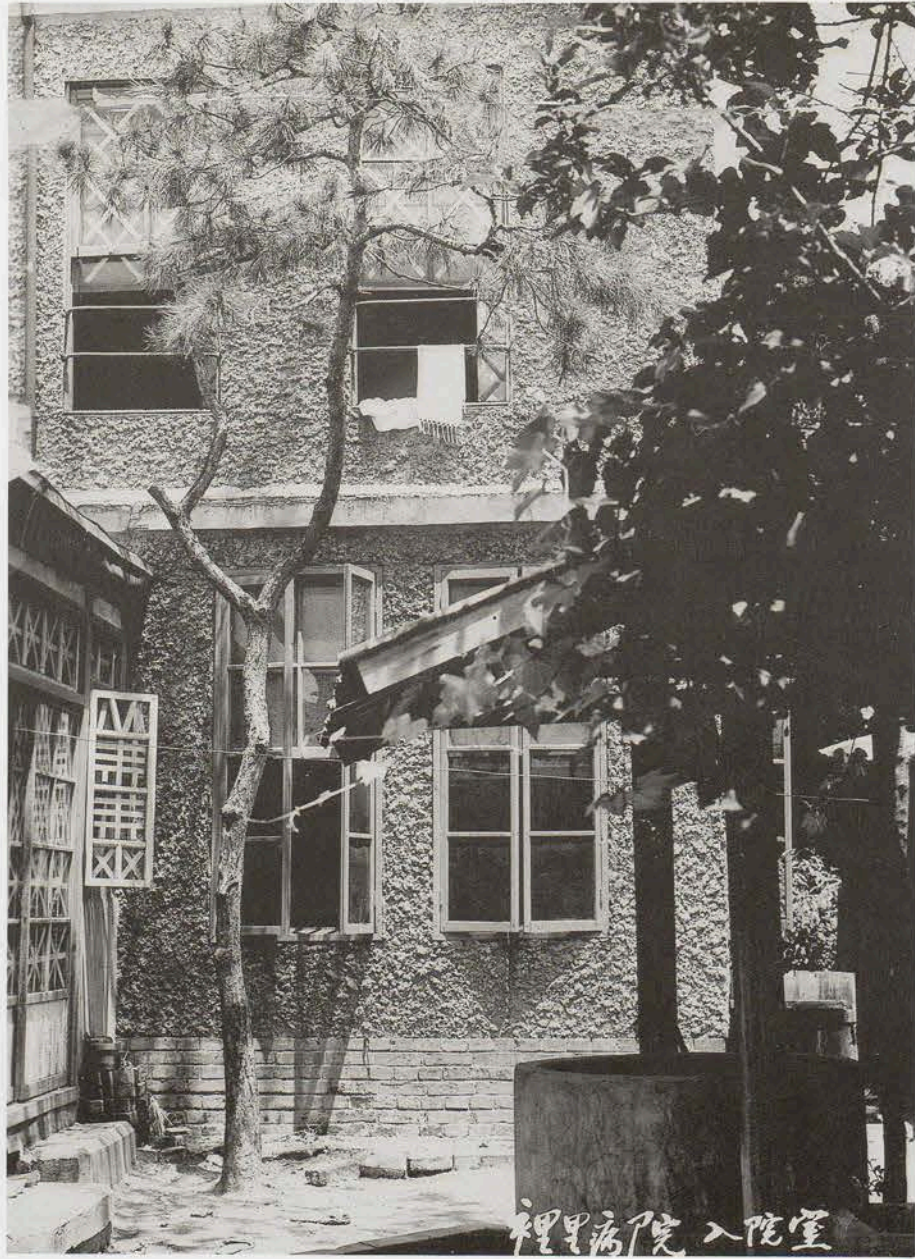
# 大宗師 涅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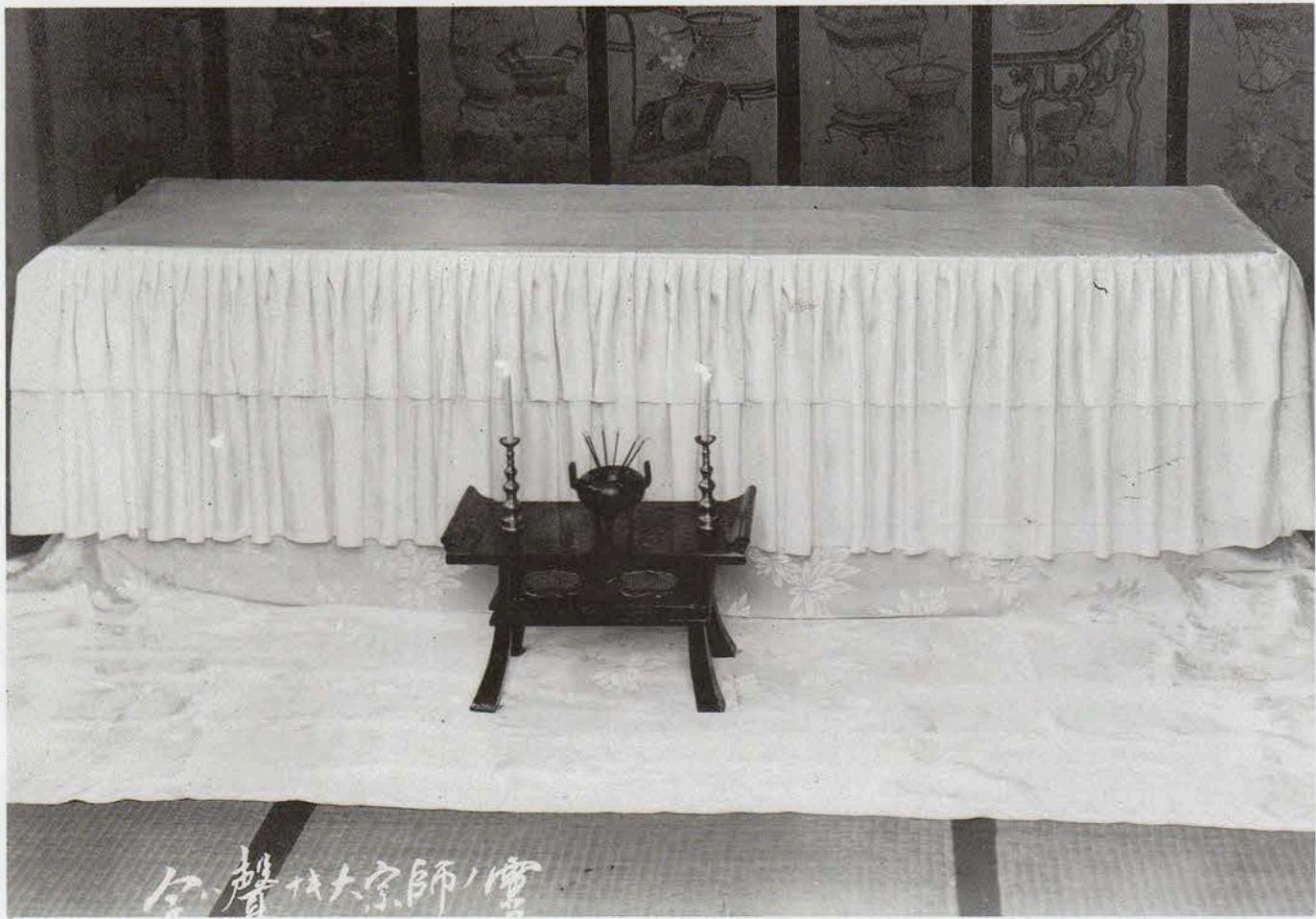
대각전 하늘 위에 솟아오른 일원상기와 「불법연구회창조 소태산일원대종사님」 열반표기



대종사님 영안에 드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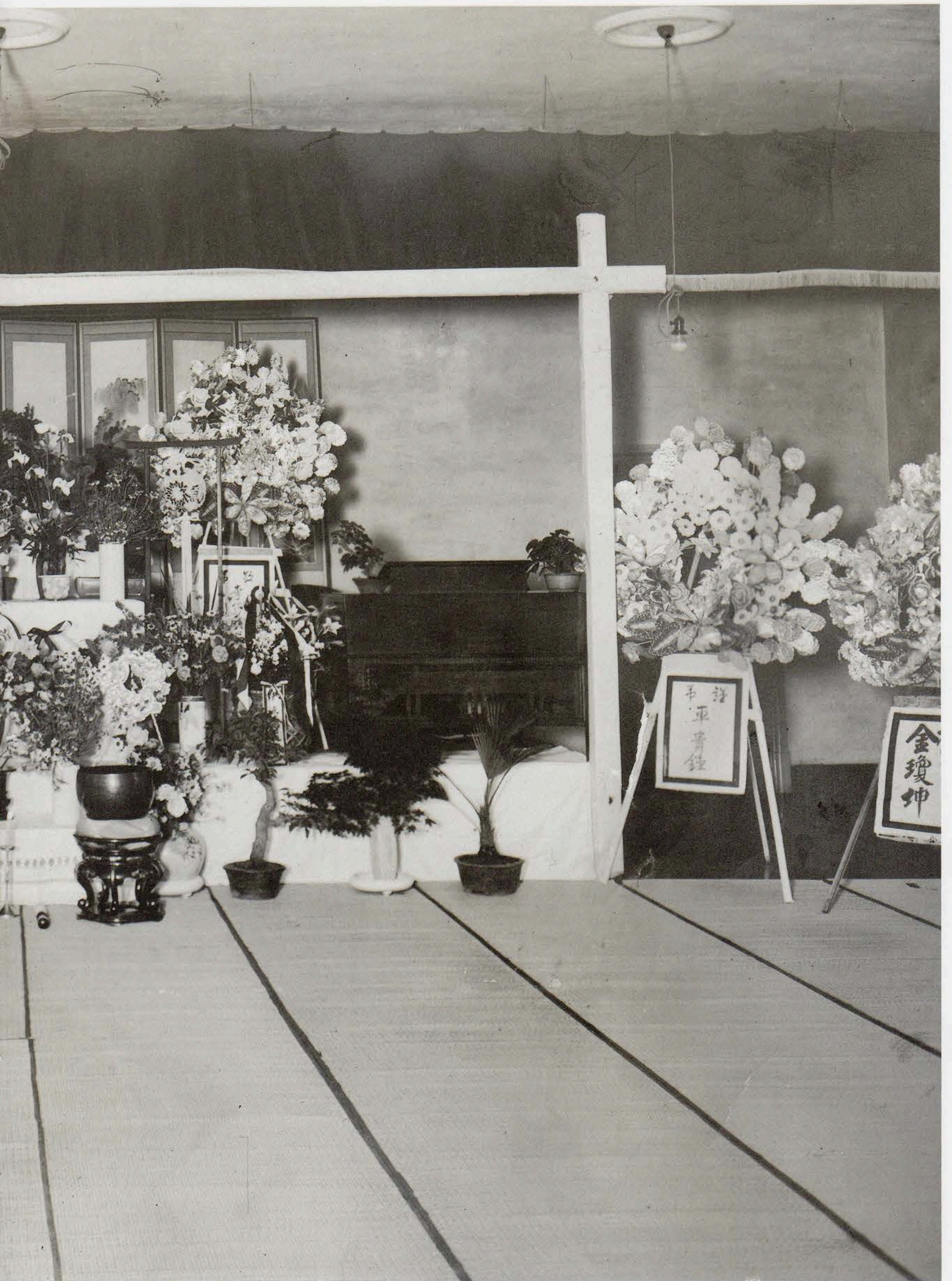
대종사님 마지막 6일간 입원하시고 (28.5.27~6.1) 열반에 드신 이리병원



영구를 모시고 있는 유가족들. 한사람 건너 사위 송도성, 차남 광진, 장남 광전, 대사모, 장녀 길선, 자부 임영전, 질녀 일준

法 研 究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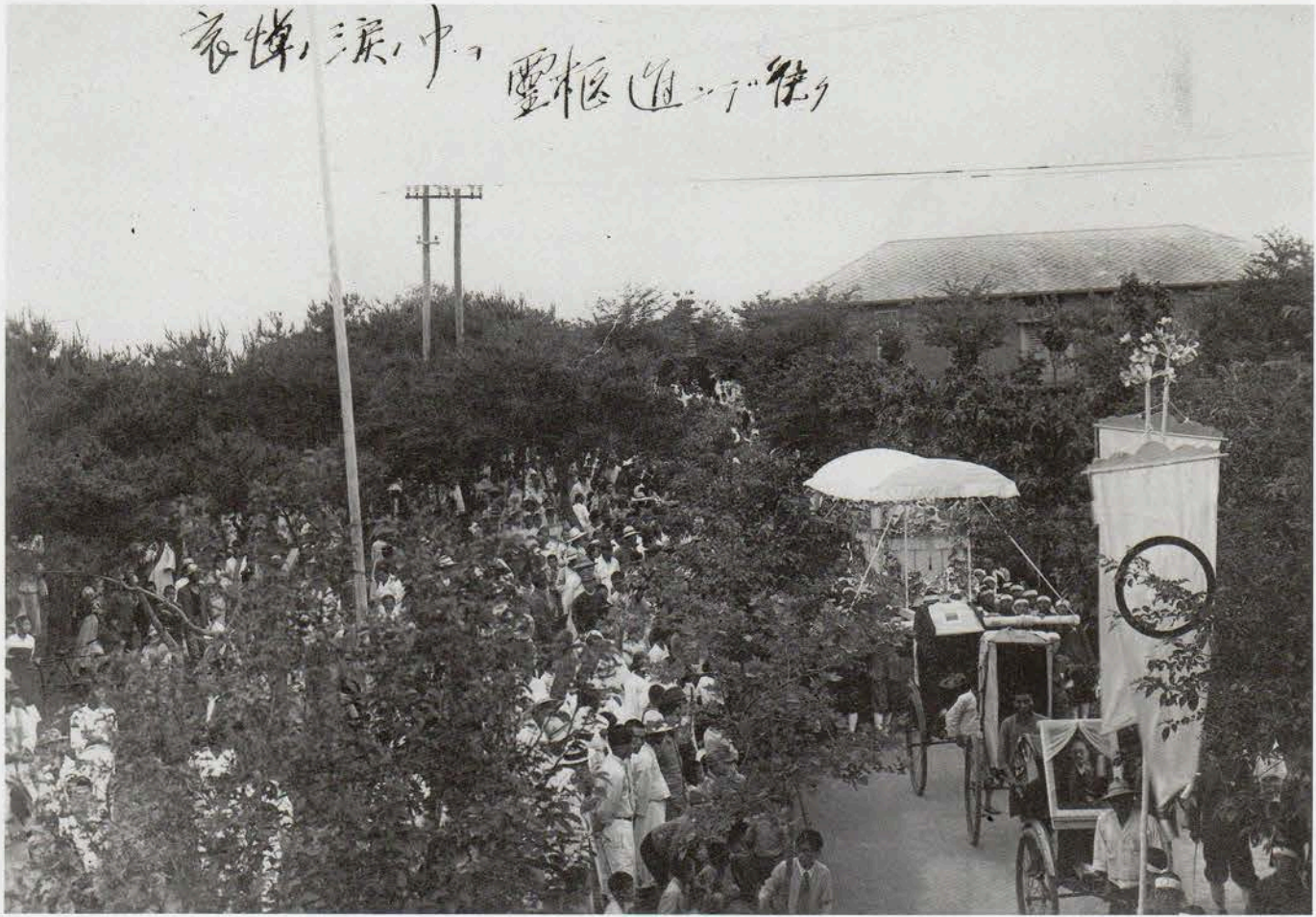
생화와 조화로 장엄한 대종사님 영결식장 대각전 불단



(위) 원기28년 6월6일, 일경의 삼엄한 감시하에 엄수되는 영결식  
 (아래) 영결식을 마치고 젊은 제자들에 의해 운구되고 있다.



(위) 불교연맹 승려들의 법요식  
 (아래) 대각전 앞에 운집한 남녀노소 제자들 속에서 떠나는 영여(靈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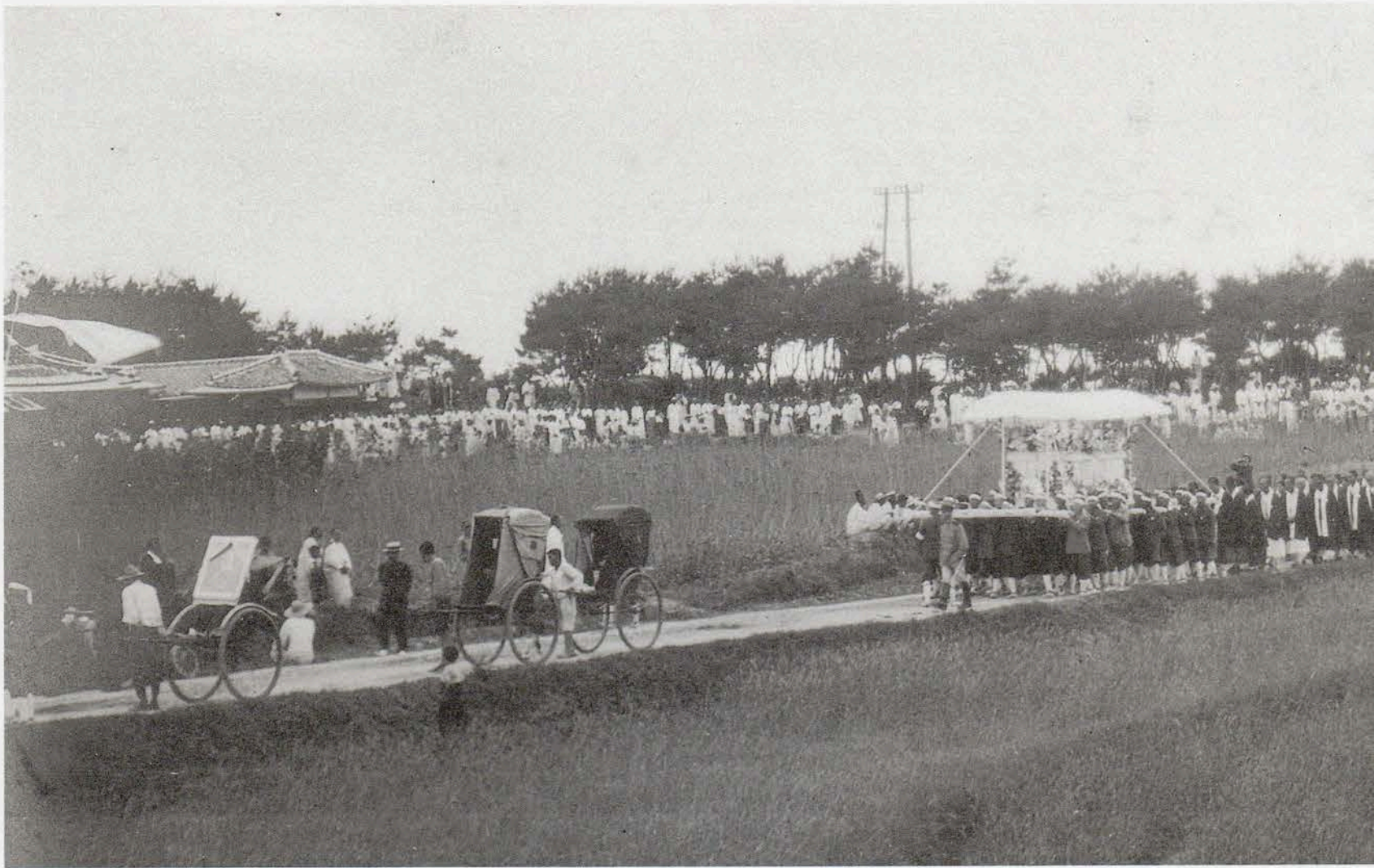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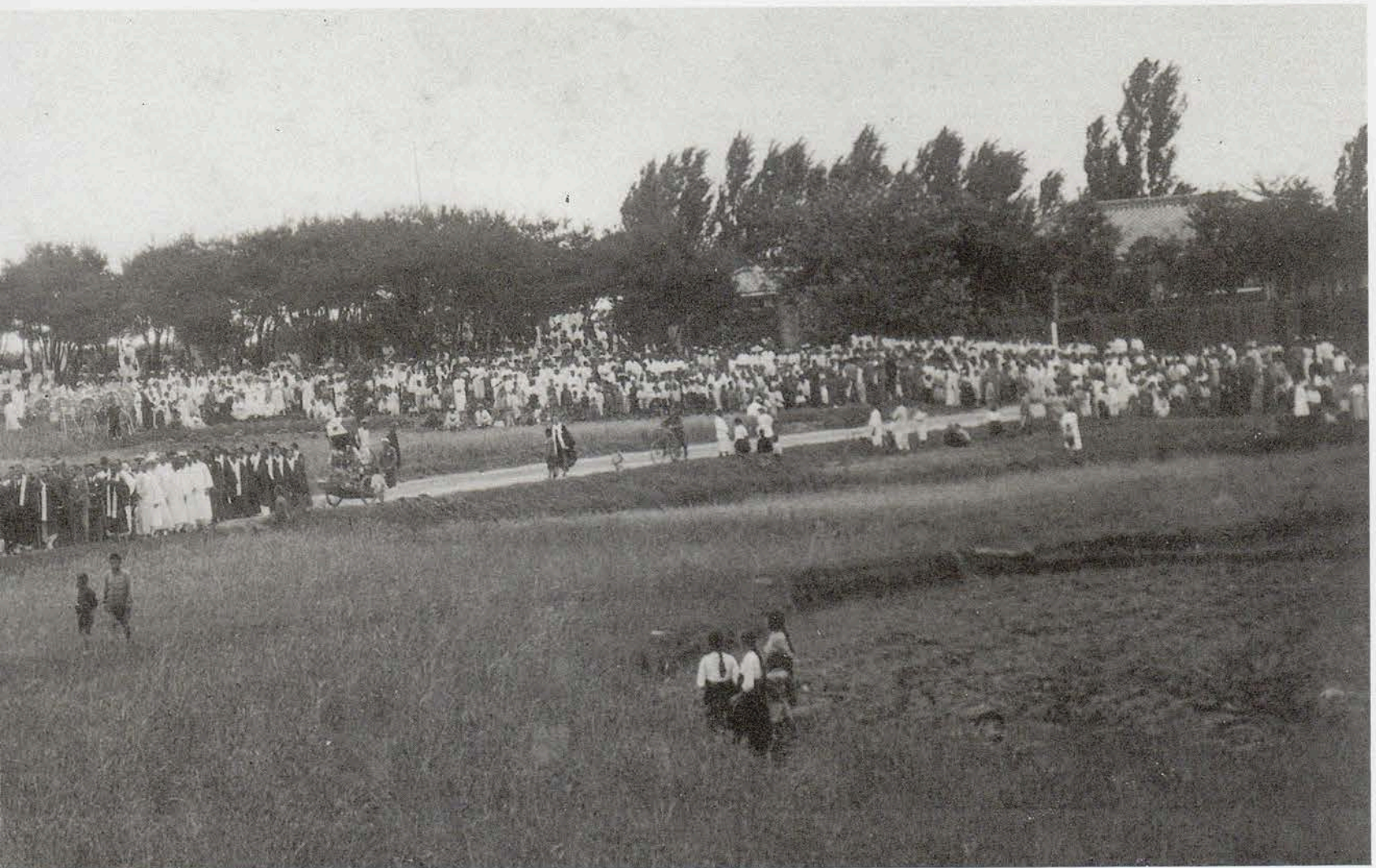
(위) 대각전을 떠나는 장의행렬. 5월 16일 오전, 대종사님께서 최후설법을 하시기 위해 대각전으로 오시다가 총부 어린이들에게 경례를 받으시던 곳이다.

(아래) 영여(靈輿) 전모



(위) 새말 복일지서 앞을 통과하는 장의행렬. 행렬 좌우에 일경들이 사찰하고 있다.  
 (아래) 이리읍내 천일고무공장 앞을 지나가는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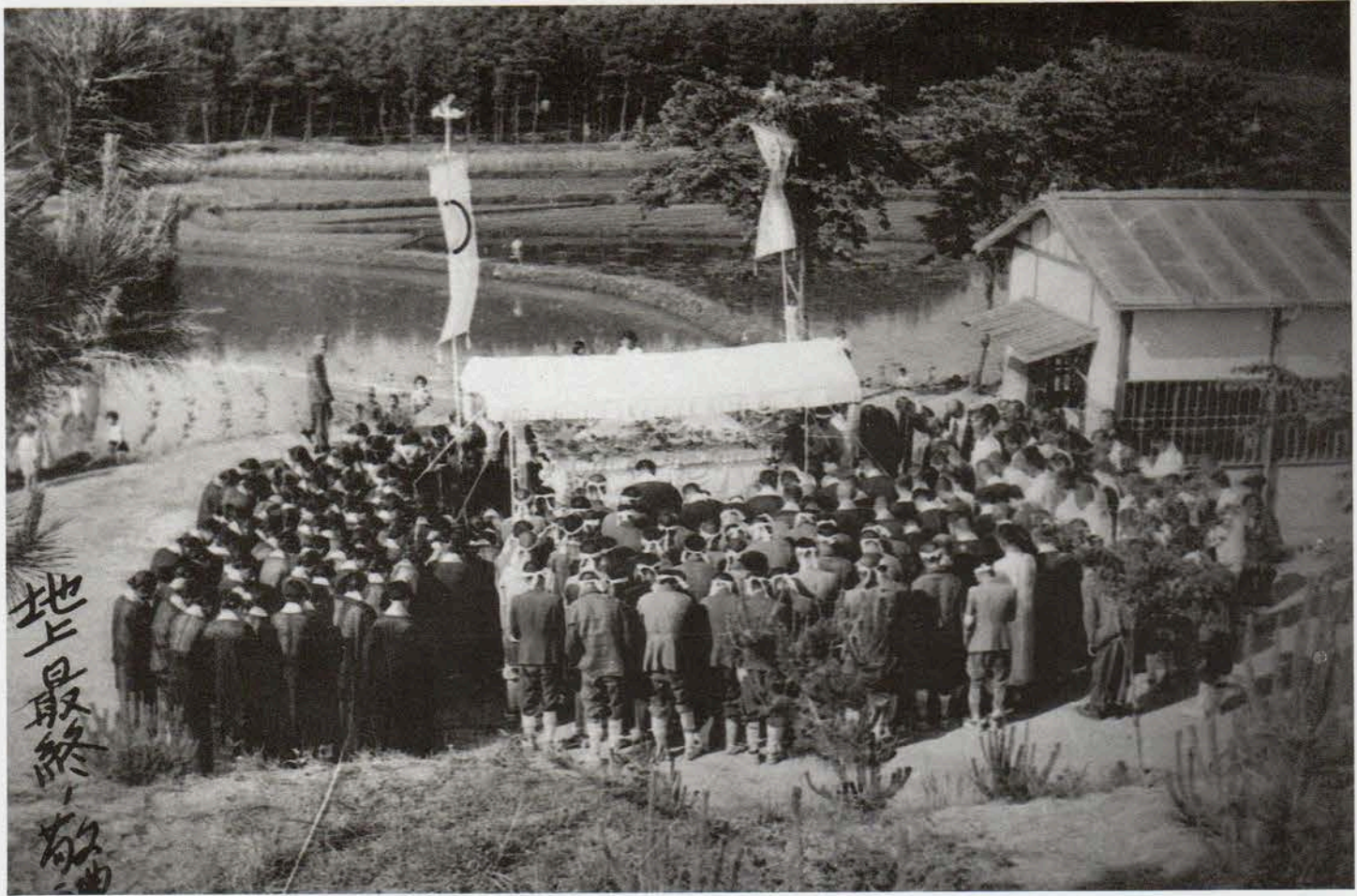


(위) 총부를 떠나는 영여.  
 일경의 삼엄한 통제하에 230명만 장의행렬에 참가하고 나머지 대중들은 오열하며 송별하였다.  
 (아래) 법복을 입은 제자들의 장의행렬.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법복(法服)은 상복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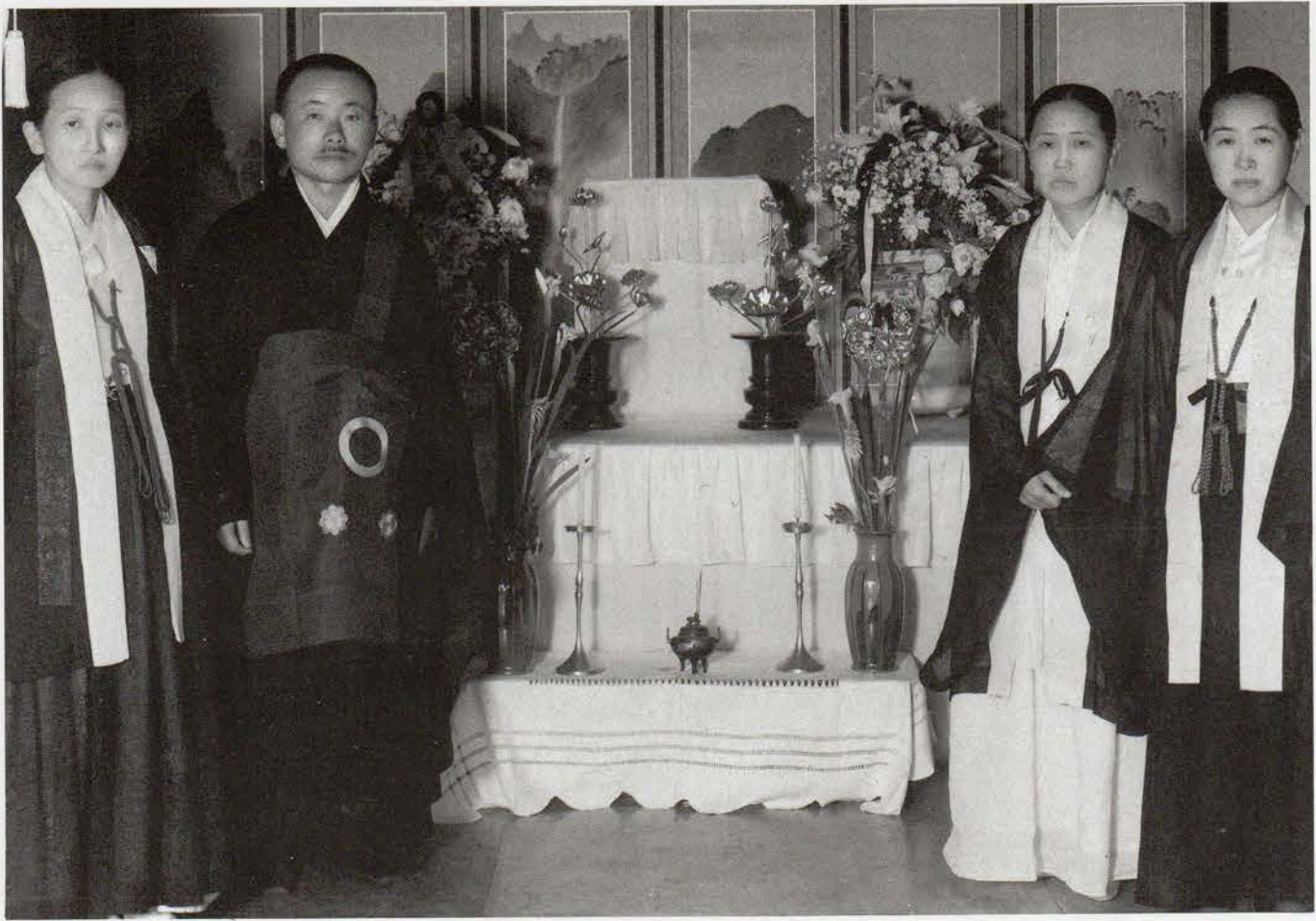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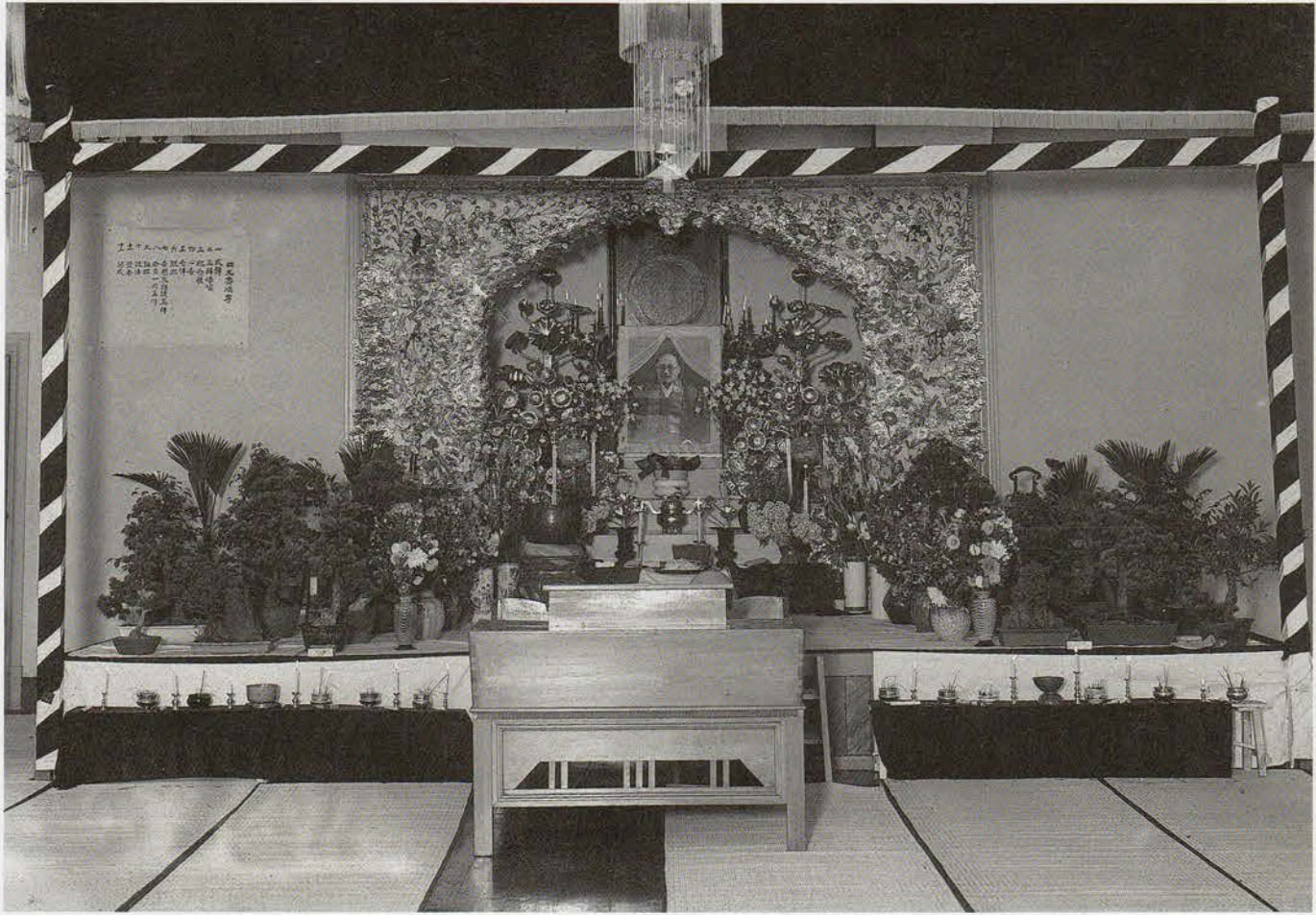
작은 새말(小新洞) 남녀노소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꽃발재를 넘어가는 장의행렬



(위) 금강리 수도산 화장막에서 제자들은 최후의 목도를 하고 있다.  
 (아래) 점화 직후 수도산 화장막



(위) 다비식을 마친뒤 조실에 유해를 안치하고 제청에 서 있는 제자들.  
 이공주, 신임 종법사 정산 송규(鼎山 宋奎), 이동진화, 황정신행  
 (아래) 종재식장(대각진)을 향하여 조실에서 운구되는 유해



(위) 대종사님 열반 종재식장 불단과 주인 잃은 텃빈 법상  
 (아래) 종재식장에 참여하여 울먹이며 대종사님 추모담을 하는 박문사 주지 우에노(上野)스님



금강리 수도산에 안장된 소태산 일원종사지묘(少太山一圓宗師之墓)



(위) 대종사님 열반 뒤, 허뚱한 가슴을 안고 수도산을 찾곤 하는 제자들  
 앞줄 전음광, 박광전, 조갑중, 전구일. 뒷줄 박창기, 정광훈, 서대원, 송혜환, 김대거  
 (아래) 금강리 수도산을 찾아 소태산 일원종사지묘에 참배를 마친 여 제자들



(위) 단장을 영 이별한 뒤 남은 최초 수위단의 남은 제자들 (원기28년 6월6일)  
 앞줄 일산 이재철, 이산 이순순. 뒷줄 사산 오창건, 육산 박동국, 정산 송규  
 (아래) 흥부 송림동산에 건립된 「대종사 성탑」에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의식을 마친 뒤  
 성해연여 대각전을 떠나고 있다. (원기34년 4월25일)





공회당 옆을 지나 송대로 향하고 있는 성해연여행렬(원기 34년 4월 25일)



대종사 성탑

원기34년(1949)4월 25일 총부 송림 동산에 성탑을 건립하고 금강리 수도산에 안장되어 있는 유해를 이곳으로 이안하였다.



대중사 성비

소태산대중사의 생애와 업적을 길이 추모하기 위해 원기38년(1953) 6월에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하나로 건립된 비석. 총부 대중사 성탑 동남편에 위치하고 있다.

# 大 家 宗 師 院 銘 序

事并行處處佛事事佛供無時禪無處禪等大論를 밝히사四通五達의 圓融한道로써 모든法을簡易能行케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教理訓鍊을實施하시느니 하나다시 生活制度의 改善에着手하시 靈禮刪削과 迷信打破며 自給自給과 收支對照等 方法으로써 새로운 事業基礎를 쌓으사 春風沐雨二十餘年에 夙夜勤懇하시외 日政의 壓制와 外위가 모두 難關을 克服하시어 敎團建設에 오로지 心血을 다하시더니 癸未五月十六日에 大衆을 모으시고 生死眞理의 大法門을 最後로 說하신後 六月一日에 涅槃相을 보이시니 世壽는 五十三이요 開法이 二十八年이였다. 때에 徒衆들은 攀號擗踊하여 그 眞容을 瞻望하고 一般社會의 嗟嘆하는 소리 連하여 마치 아니 하였으며 靈空法界와 森羅萬像이 다 같이 嗚咽하는 氣像을 보이였다. 그後 敎團은 한 갈래가 先師의 遺業을 이어 時局의 萬難을 겪으며 大衆이 一心同進하던 中 乙酉八月에 民族의 解放이 되자 新 國運의 發展과 아울러 敎勢가 漸次擴昌되매 丙戌四月에 敎名을 圓佛敎라 定하고 이를 天下에 公示하였다.

嗚呼라 大宗師는 알찌기 曠劫種聖으로 窟村邊地에 坐長하시어 學問의 修習이 있었으나 文理를 스스로 알으시고 師長의 指導가 있었으나 大道를 自覺하시었으며 板蕩한 時局을 當하였으나 事業을 躊躇하지 아니하시고 頑強한 衆生을 對할찌라도 濟度의 萬能이 俱備하시었으며 衆像은 泰山喬嶽같이 하시니 春風和氣의 慈悲가 兼全하시고 處事는 磊磊落落하시니 細細曲節의 眞情을 通해주시며 옛法을 改造하시니 大義는 더욱 세우시고 時代의 病을 바꾸시니 頑固에는 그치지 않게 하시며 萬法을 하나에 總攝하시니 分別은 오히려 歷歷히 밝히시고 하나를 萬法에 施用하시니 本體는 恒常如如히 들어내사 안으로는 無上妙象의 原理에 根據하시고 밖으로는 事事形物의 支流까지 通하시어 一圓大道의 바른法을 十有三處에 限없이 열으시었으니 이른바 百億化身의 如來시요 集群聖而大成이시라 永天永地 千萬劫에 無量한 그 功德을 萬一이라 도 標記하기 爲하여 이 序를 세우고 이 銘을 지어 가로대

粵若宗師 曠劫種聖 應化機緣 救世度衆 自修自覺 經路艱難 建敎事業 平地造山 一圓大道 萬法之母  
 敎門通達 衆聖共會 廿八年間 夙夜勤懇 千萬方便 無量法門 法輪復轉 佛日重輝 人天咸戴 六衆同歸  
 暨亘三際 橫遍十方 雨露之澤 日月之明 無邊功德 標以斯石 永天永地 慕仰無極

圖 紀 三 十 八 年 四 月 二 十 六 日 立

# 眞覺聖尊水火山

大凡天地에는 四時가 循環하고 日月이 代明하고 萬物이 그 生成의 道를 얻게 되고 世上에는 佛佛이 繼繼하고 聖聖이 相傳하므로 衆生이 그 濟度의 恩을 입게 되나니 이는 宇宙自然의 定則이다. 옛날 靈山會上에 열린 後正法과 像法을 지내고 季法時代에 들어와서 바른 道가 行하지 못하고 샅된 法이 山上에 遍滿하며 精神이 勢를 잃고 物質이 天下를 支配하여 生靈의 苦海가 날로 增深하였다니 이것이 곧 救主이신 大宗師께서 다시 山上에 出現하시게 된 機緣이다.

大宗師의 姓은 朴氏요 諱는 重彬이요 少太山은 그 號이시니 釋尊紀元二千九百十八年辛卯三月二十七日에 全羅南道靈光郡白岫面古龍里에서 誕生하시었다. 父는 朴晦傾母는 劉定天이시요 新羅始祖王朴赫居世의 後裔이시다.

大宗師幼時로부터 氣像이 凜凜하시고 度量이 雄大하시며 모든 事物에 每樣思索의 精神이 많으시고 한번 하기로 한 일은 아무리 어려울 일이라도 반드시 實踐하는 勇斷才이 있으시다. 九歲時에 宇宙의 自歎現象을 보시고 근 疑心이 發하시었으나 그 疑頭를 물기로 한즉 生과 死의 漠然하여 到底히 究竟處를 解得하기가 어려우매 大宗師의 憂鬱하신 心境은 날이 갈수록 깊어 지시사 처음에는 山神에게 다음에는 道士에게 依賴를 求하여 보시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畢竟은 晝宵一念이 오직 疑心뿐으로 漸漸計較頓忘하는 三昧의 境界에 드시었으니 이 사이에 生活의 困難과 心身의 疲勞는 이루다 말할 수 없으시다. 二十六歲되시던 丙辰三月二十六日 이른 아침에 東天의 曙光을 보시고 精神이 문득 爽快해지시며 積歲에 맺혔던 疑頭가 물리키 시작하여 드디어 大覺을 이루시었다.

大宗師大覺을 이루신 後前聖의 證悟處를 參考하기 爲하사 諸家의 經傳을 閱覽하시다가 舍利經을 보시고 가라사대 釋迦牟尼佛은 眞際로 聖中聖이라 하시고 이에 부처님께게 淵源을 定하시고 다시 現時局을 觀察하시매 途가 이미 危機에 當하여 그 救濟事業이 時屢함을 생각하시고 처음 凡人弟子를 일으키사 最初法語를 說하신 後靈肉雙全의 基礎를 닦기 爲하여 먼저 貯蓄組合을 設置하시거늘 龍里海面의 墾瀆地를 開拓하시고 無我奉公의 精神을 세우기 爲하여 祈禱誓願을 命하시었다던바 凡人이 한가지 血印의 信誠을 바치었다. 己未八月에 二三弟子를 다리시고 錫杖을 扶安蓬萊函에 옮기시어 五年間住하시며 敎理制度의 草案을 大畧마치신 後甲子四月에 下山하시어 總部를 此新龍里에 建設하시고 佛法研究會라는 臨時名稱으로 敎門을 公開하시사 弟子數十人으로 더불어 晝耕夜讀의 艱苦한 生活을 하여 가며 敎理訓練을 시작하시었나니 敎理의 大綱은 一圖을 最高宗旨로 하여 이를 信仰의 對像과 修行의 標本으로 하는 同時에 千萬事理를 다 이에 統一케 하시고 四恩四要를 倫理로 하여 從前에 未達한 모든 倫理를 다 通하게 하시고 三學八條를 修行으로 하여 從前에 偏僻된 一切修行을 并進하게 하시며 다시 靈肉雙全理

# 소태산 대종사 연보

나이	서기	원기	내 용
1	1891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5일(음3. 27)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에서 밀양 박씨(朴成三, 법명 晦傾)와 강릉 유씨(법명 定天)의 4남 2녀중 3남으로 출생하시다.</li> </ul>
7 ~ 8	1897	-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현상과 인간사에 대한 의문에 몰입 해답을 얻지 못해 고심하시다.</li> </ul>
10	1900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문서당에 입문하시다.</li> </ul>
11	1901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문시제(宗門時祭)에 참석하여 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산신의 힘을 빌어 의심을 풀고자 삼밭재 마당바위에서 매일 기도, 15세까지 만4년간 계속하시다.</li> </ul>
15	1905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수면 홍곡리 장기촌에 사는 제주 양씨(법명 梁夏雲)와 결혼, 자(字)를 처화(處化)라 하시다.</li> </ul>
16	1906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대소설을 듣다가 작품 중 도인의 역할에 감동하시어 이후 5년간 도사 찾아 고행하시다.</li> </ul>
21	1911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곤란을 타개코자 5월에 칠산 파시에 장사차 나가 10월에 돌아오시다.</li> </ul>
22	1912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사 만나기를 포기하고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근심과 의문에 싸인 나날을 보내시다.</li> </ul>
24	1914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에 전북 고창군 심원면 연화동 근처 연화봉에 있는 초당에서 3개월간 입정 수도하시다.</li> </ul>
25	1915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은 궁핍해지고 피골이 상접(皮骨相接)하여 마을사람들이 폐인취급하였으나 입정(入定)상태가 점점 깊어지시다.</li> </ul>
26	191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28일(음 3. 26) 이른 아침, 드디어 대각을 이루시다.</li> <li>• 대각 후 당시 한국에 있던 각 종교의 경서(儒·佛·仙·基督·東學 등)를 열람, 특히 《금강경(金剛經)》보신 후 석가모니불을 성중성(聖中聖)이라 하고 교법의 연원을 불법에 대시다.</li> <li>• 6월 최초범어를 발표하시다.</li> <li>• 12월, 40여명의 추종자 중 8인을 뽑아 표준제자로 삼으시다.</li> </ul>
27	191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12일(음 7. 26) 조단법에 따른 정수위단(正首位團)조직, 월 3회 정례법회 실시 하고 《성계명시독(誠誠名時讀)》이라는 일기법을 두어 일상생활을 점검케 하시다.</li> <li>• 가을, 저축조합을 창설하고 허례폐지, 금주단연, 근검저축을 실시하시다.</li> </ul>
28	191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13일, 저축조합 자산과 차입금을 자본으로 하여 길룡리 앞 개펄을 개간하기 위한 방언공사(간척사업)에 착수하시다.</li> <li>• 8월 2일, 송도군(宋道君, 법명 奎, 법호 鼎山)을 맞이하여 수제자로 삼으시니 이로써 표준제자 9인이 확정되다.</li> <li>• 12월, 마을 뒷산 옥녀봉 밑에 최초 집회실 구간도실(九間道室) 착공, 두 달 뒤 준공하다.</li> </ul>
29	191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방언공사 완공 하다.(총 경지면적 3만여평) 방언공사 자금 출처 및 독립지사와의 관계 여부에 대한 혐의로 일경(日警)에 연행되시다.</li> <li>• 4월 26일, 9인 단원 노루목 뒷산을 중심으로 구수산 봉우리에 방위 정하고 산상 기도 시작.</li> <li>• 8월 21일(음 7. 26) 결사의 기도 끝에 9인 제자들이 백지혈인(白指血印)의 이적을 보이다. 이 때 제자들에게 범명을 주시다.</li> <li>• 9월, 휴양차 강제 금산사에 머무르실 때 거실 문 위에 일원상(一圓相)을 그리셨으니 이것이 후일 일원상의 효시가 되다.</li> <li>• 11월 26일(음 10. 6) 단원기도 해제하고 저축조합을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으로 개칭하시다.</li> <li>• 12월 11일에는 변산으로 가서 월명암에 머무르시다.</li> </ul>
30	192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변산 실상마을로 내려오시다. 익산 총부 건설 전까지 실상사 옆 초당 및 석두암에 머물며 교리를 초안하시고 창립인연들을 만나시다.</li> <li>• 6월, 교강(教綱)인 사은, 사요, 삼강령, 팔조목을 발표하시고 《조선불교혁신론》, 《수양연구요론》 초안 작성하시다.</li> </ul>

31	1921	6	• 8월, 석두암 착공, 10월 준공하다. 초당과 아울러 「봉래정사」라 이름한다.
33	1923	8	• 1월, 진안 만덕산에 가서서 전음광 등 만나 제자삼으시고, 7월에는 변산에서 서중안 등 창립인연 제자들을 맞이하시다.
34	1924	9	• 총부기지 물색차 정읍 내장산 거쳐 서울에서 박사시화, 이동진화 등을 만나시고 서울에 임시 출장소 설치하시다. • 6월1일, 이리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개최하다. • 9월,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 일대에 중앙총부기지 결정, 10월 총부건설 착공하고, 12월 준공하다.
35	1925	10	• 1월, 출가자 수익사업으로 엿제조 및 판매(행상)하다. 출가자 공동생활 실시하다. • 4월, 훈련법(정기훈련, 상시훈련) 제정 발표하고, 6월 26일(음 5.6), 최초로 하선 결제 3개월간 훈련 실시하다. • 9월 엿방 그만 두고 동양척식회사 소유 만석들 소작등으로 전환하다. • 12월 동선 결제, 이후 매년 여름·겨울로 3개월씩 정례화하다.
36	1926	11	• 3월, 신정의례 발표, 출생 및 혼상제례 시범 실시하다.
37	1927	12	• 《취지규약서》, 《상조부규약서》, 《수양연구요론》 발간하다.
38	1928	13	• 4월6일 농업부·인재양성부 기성연합단 만들어 영육쌍전과 인재양성운동 전개하다. • 5월15일(음 3.26), 제 1회 창립 기념총회(1회는 12년 단위임) 개최하다. • 5월, 기관지 월간 《월말통신》 창간하다. • 11월25일자 《동아일보》에 〈세상풍진 벗어난 담호반(淡湖畔)의 이상적 생활〉이란 제목으로 불법연구회 탐방기사 실리다. 이후 신문, 잡지들에 르포기사 등이 종종 실리다.
40	1930	15	• 5월 28일부터 9일간 금강산 유람하다.
41	1931	16	• 10월, 부산 방문, 범어사·통도사·불국사·석굴암과 수운선생 묘소 탐방하다.
42	1932	17	• 4월, 정식 교서 《보경육대요령》 발간하고 • 6월, 《월말통신》을 36호부터 《월보》로 게재하다.
43	1933	18	• 7월, 《월보》 48호로 압수폐간 당하고 • 8월, 《회보》라는 명칭으로 출판 허가 받아 1호부터 다시 발간하다.
44	1934	19	• 8월, 이리에 합자회사 보화당 한약방 창설하다. • 12월, 육대요령을 활요하여 《삼대요령》 발간하다.
45	1935	20	• 7월 7일, 일본 대판지부 창설하다. • 4월, 총부대각전 준공, 일원상을 정식 봉안하다. • 4월, 《조선불교혁신론》 발간, 8월, 《예전》 발간하다.
46	1936	21	• 9월, 이리 경찰서에서 불법연구회 내사를 위해 총부 안에 주재소까지 설치하고 탄압을 심하게 하다.
48	1938	23	• 11월, 〈심불일원상내역급서원문(心佛一圓相內譯及誓願文)〉 발표, 일반교도 가정에도 일원상을 봉안케하다.
50	1940	25	• 1월, 전수학원 설립을 청원했으나 거부당하다. • 2월, 전주 완주군에 삼례과수원 창설하다. (임야 7만평) • 7월, 《회보》, 일제탄압으로 65호로 폐간당하다. • 9월, 모든 초기교서들은 통일 수정 착수.
51	1941	26	• 1월 25일, 전법개송(傳法偈頌) 발표하시고 4월 총회에는 제자들에게 법복(法服)을 내리시다.
52	1942	27	• 장적조, 만주 목단강 중심으로 각지 순교활동 전개. • 4월, 탁아소 겸 보육원(慈育院) 설립을 청원했으나 거부당하다. • 10월, 최후의 지방순시 하시다.
53	1943	28	• 2월, 교전《불교정전(佛敎正典)》교정완료하고 인쇄에 부치다. • 4월, 여자수위단 내정하다. • 5월 16일 생사법문을 최후로 설하시고 와병. • 6월1일 오후 2시 전후 개법(開法) 28년, 세수(世壽) 53세로 열반하시다.





## 편집후기

대중사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불과 백년이요 이 땅을 떠나신지 50년 미만의 세월이다. 「대중사 모습」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은 극히 단편적이고 빈약하기 이룰데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교단의 사진첩은, 유일학림 1기생의 《졸업앨범(1949)》, 정산종사 열반 후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교단 현황을 담은 《기념사진첩(1962.7)》, 그리고 개교 반백년기념대회 때 21장의 사진을 수록한 《대중사 진영(1971.10)》이 발간된 적이 있었다.

이제 대중사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여 대중사님과 초기 교단 관계 사진을 한데 모아 이 사진첩을 펴내게 되었다.

최초의 대중사님 사진은 30대 중반(원기 9년경)의 삭발한 모습이다. 원기 8년(1923) 이전 변산 봉래정사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 대중사님은 상투를 올리고 아랫 수염을 길렀다고 하는데, 30대 초반이전에는 사진 촬영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사진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유감스럽게도 자연스럽게 촬영한 스냅 사진은 한장도 없고, 거의 정기훈련, 정기총회 등 행사기념 사진이거나 제자들과 같이 사진관에서 촬영한 것 뿐이다. 평상시의 자비성안, 활달 자재한 聖姿며, 제자들을 엄교중책하시는 모습, 육도사생이 우뚝거리도록 범홍을 진작하며 범설하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대중사 모습」에 대한 표현작업은 원기 10년대부터 비로소 교단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처음에는 명화가 蔡某씨를 초빙하여 초상화를 그리게 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 뒤인 원기 14년(1929) 9월 이공주 선진님이 서울에서 某씨에게 초상화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원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후대에 전하여 지지 않았다. 외부 화가들로부터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스승님의 모습을 직접 표현하고자 나서는 제자가 있었다.

원기 17년(1932)에 惠山 全飲光 선진님이 삼각 자바라 원판 사진기를 구입, 사가에 암막 장치를 하고 대중사님 모습을 촬영하였다.

원기28년(1943:대중사열반 뒤)에는 默山 朴昌基선진님이 이리 동양사진관 촬영사를 대동하여 발인식 당시와 영산·변산·익산 성적지 관계의 많은 사진자료를 남겼다. 이 사진첩에 수록된 것은 거의 惠山·默山 두 선진님에 의해 마련된 사진들이다. 이는 일찌기 교단만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남다른 사명감으로 사진 자료를 남겼던 두 선진님과, 이를 귀히 알고 오랫동안 소중히 보관하였던 九陀圓 李共珠선진님의 은혜라 할 수 있다.

이 사진첩은 대중사 독사진을 묶은 「大宗師 眞影」編, 탄생에서 열반까지 유적과 단체 기념사진을 모은 「大宗師 生涯와 教化活動」編, 열반 뒤 초종장례 행사로부터 성탑건립까지의 자료사진을 모은 「大宗師 涅槃」編 등 3편으로 엮었다. 이 사진첩에 수록되지 않은 초기교단 관계 사진 자료도 많이 있으나 여건상 다 발표할 수 없어 다른 기회를 통하여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책자의 사진설명은, 사진 아래 촬영자의 기록, 뒷면의 촬영일자 기록(불법연구회 교무부 日附印)에 근거하였으며, 종법실 소장 대중사 앨범, 원기56년 대중사 진영첩, 구타원 소장 사진첩의 설명 등을 참고하여 비교 검토하였고 원로 선진님들의 고증과 감수, 그리고 당시 정기간행물 《월말통신》《월보》《회보》의 각지상황과 《사업보고서》기록에 의거하였음을 밝힌다.

또 연대 기록은 당시 음력을 현재 통용되는 태양력으로 환산하였다. 사진첩《少太山 大宗師》의 발간을 계기로, 한층 少太山 大宗師의 創教精神을 체득하여 신행이 돈독해지며 初期教團史 研究는 물론 대중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다행으로 여기며 본서의 편집후기를 맺는다.

원기 76년 10월 14일

판권소유



사진첩 少太山大宗師

원기 76년(1991) 11월 1일 초판인쇄  
원기 76년(1991) 11월 5일 초판발행

편집·발행

소태산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원 불 교 출 판 사  
570-754 전북 이리시 신룡동 344-2  
인 쇄 : 원 광 사

〈등록번호 제 7 호 1967. 7. 1〉

